

1990 3

만 낙
THE YOUNG NAK MONTHLY

표어/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영 락 교 회



한경직 목사가 '사랑의 쌀 나누기운동'의 대표로 청와대 오찬에 초청받은 자리에서 장강재 한국일보 사장과 함께 대통령과 나라의 화합 및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3월 7일).



'사랑의 쌀 나누기'에 먼저 동참하여 한경직목사에게 1억원의 성금을 전달하는 광림교회의 김선도 목사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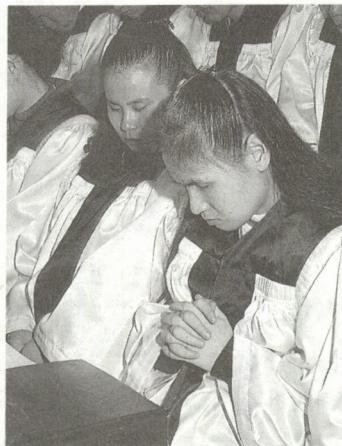
1990/3월호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1.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2.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3. 에큐메니칼 정신의 구현
4.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공의실현

4대 목표

- (1) 교육
- (2) 성도의 교제
- (3) 선교
- (4) 봉사



표지설명

여섯 명의 맹인 교우들이 모여 한 성도의 집에서 첫 예배를 드린 지 어언 18년. 오늘 이곳 회현동의 225평 대지에 10만 맹인의 복음화를 위한 현당예배, 주님께 감사기도 드리는 어느 여신도의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진다.

— 한국맹인연합교회 현당식에서 —

글·사진 이상근 집사

차례

2	만남의 초점/편집부
4	이달에 듣는 말씀/담임목사
6	논단 <북한선교에서 생각할일>/김윤곤
8	사랑의 쌀나누기 운동 캠페인/편집부
10	3·1운동과 기독교/김세창
12	평신도와 신학/신중현
15	아곱의 우물가<칼럼>/김귀혁
16	원로와의 만남 <송성찬 장로>/박태서
19	사회복지 <영락보린원>/편집부
20	영락보린원 특별취재/김경숙
22	화보 <사진으로 보는 보린원 변천사> 편집부
24	목회자가 본 성지순례/신기찬
28	기획특집 <장애인과 교회>/권정순·황순복 취재/김미선·이혜경
34	새해의 일터/해외선교현장에서 <칠레> 허원구
36	교회사식/각부
42	제10회 부활절음악회
44	신앙과 예술<서양화> 김창희

월간 만남 3월호(195호) 문화공보부 등록·라-3731(1988.8.29)
1990년 3월15일 발행/발행인 겸 편집인·임영수/주간·최순경
편집 처 및 발행·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서울 종구 저동27169>
우편번호·100-032/전화·273-6301
인쇄·세신문화사 [비매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다녀와서



임 영 수 (담임목사)

“가나안”하면 우리는 구약성서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는 약속의 땅을 연상하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 가나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한편 가나안은 상징적인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이스라엘이 고난의 땅 애굽을 떠나서 시련과 연단의 장소 광야를 거쳐 들어갈 영원한 안식처로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눈물과 한숨, 질병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안식처 그곳이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독일 땅 한가운데 그러한 의미를 지닌 아름다운 삶의 공동체 장소가 있습니다. 이번 독일 방문시 그곳을 방문해보고 현실에서 가나안 구현이 가능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독일 프랑크 푸르트 공항에서 내려 기차역에서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약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다름슈타트(Darmstadt)라는 조그마하고 조용한 도시가 있습니다. 다름슈타트역에서 택시를 타고 약 15분 정도 교외로 빠져나가면 아담한 철제 대문이 달려있는 시멘트 기둥에 “Evangelische Marienschwesternschaft”(마리아 자매회)라고 새겨 있는 조그마한 동(銅) 간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독일 땅 한가운데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이 마리아 자매회는 2차대전 말기 바실리아 슈링크 여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개신교 수녀원입니다. 1944년 가을, 도시 다름슈타트가 폭격을 받아 헤아릴 수 없는 인명과 가옥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때 성경반 젊은 여자들이 자기들의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죄악이 도사리고 있는 걸 깨닫고 깊이 뉘우치고 자백하며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후 그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흠토하는 정이 차고 넘치게 되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더 없는 희색이 감돌았습니다. 바로 이 때의 체험을 토대로 해서 이 자매회는 세워졌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그들이 거할 집도, 예배드릴 장

소도 없었습니다. 물론 돈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재산이라고는 그 당시 독일 화폐로 30마르크가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이 적은 액수의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땅도 구입하고 스스로 집도 짓고 예배당도 세웠습니다. 지금은 몇 만평의 넓은 대지 위에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건물들이 아담하고 질서있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들은 이곳을 가리켜 “가나안”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가나안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의 공동체가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게는 ‘빛 가운데 걷기 운동’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그들 자신을 빛이신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자신들이 지은 죄를 자백하고, 서로서로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화해의 시간입니다. 이러한 ‘빛 가운데서의 교제’ 시간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어떤 것인가를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독일로 떠나기 전에 금번에 이곳을 꼭 한번 방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의 여행 계획에 우선되는 계획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미리 전화 약속을 하고 오전에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마침 한국 수녀 두 분이 계셔서 그분들의 따뜻한 영접을 받으며 그곳의 모든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후 다섯시경 그곳을 떠나기까지 제가 그곳에서 받은 인상은 모두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몇 시간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인간들이 모여 살면서도 진정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의 공동체를 구현해 갈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이루어 가는 공동체는 서로서로가 자기를 감추고 위장하며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대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내면적으로 겪는 갈등과 고통은 사회에서 받는 갈등보다 더 가중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들 삶의 공동체에서는 극복되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

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이곳에 있는 분들과의 만남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의 깊은 평화·기쁨·희망·순결·온유였습니다. 지금까지 목사로서 살아오면서 주로 믿는 사람들과 접촉해 오면서 희망과 기쁨을 느낄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의 공동체를 형성시켜 갈 수 있다고 외쳐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구체화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마음의 고통은 복음 증거에 대한 확신을 약화시키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 번 새로운 확신과 소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가리켜 주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인 오늘의 교회의 모습은 진정한 의미의 주님의 몸됨에서 얼마나 먼 곳에 있는가를, 차타고 숙소로 돌아오면서 깊이 반성해 보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복음에 대한 회의와 갈등이 무엇인가? 복음이 인간을 변화시켜 새로운 삶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다고 주장은 하지만 실제로 복음을 받아들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 소극적이며 편벽되고 생기가 없고 율법주의적이 아닌가? 어디 복음으로 변화된 삶에 대한 매력을 갖도록 살아가고 있는 무리들이 있는가? 아직도 우리들이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자유·평화·기쁨·사랑·용서가 있는가?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까?” 제 스스로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숙소가 있는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왔습니다. 약속의 땅 – 가나안, 그곳은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영원한 동경의 땅이 될 것입니다. ■■■

북한선교에서 생각할 일



김 윤 곤

(집사 홍보출판부 실행위원 조선일보 편집위원)

북한

에 교회가 있는가? 북한의 선전물들은 1988년 11월, 평양의 만경대구역 봉수동에 세워진 봉수교회의 산뜻한 모습을 자주 보도하고 있고 재미(在美)한국인 목회자들 사이에는 봉수교회 순례 봄이 일기도 했다.

대지 635평, 건평 180평에 예배당, 목사관, 교육관 등을 갖추고 있는 봉수교회는 한국 기독교계 뿐만 아니라 전세계 기독교계로부터 북한 복음화의 새 발상지가 아닌가 하고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교회 건축을 위해 재미교포 실업가 황 모씨가 거금을 헌금했다는 설이 있으나 본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기독교 교회협의회(WCC)가 비품비조로 4만 달러를 지원했고,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KNCC)도 WCC를 통해 1만8천 달러를 전달했다. 내외의 관심과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이다.

봉수교회에 이어 작년에는 반석교회가 세워졌다. 일명 칠골교회라고도 하는 반석교회는 예전에 하리교회가 있던 장소로, 김일성의 모 강반석이 집사 직분을 맡고 어린 김일성의 손을 끌고 출석했던 교회를 재건하는 형식으로 세워졌다. 반석교회의 규모는 봉수교회의 절반 정도라고 하며 그 사진은 재미교포 등에 의해 이미 공

개되었다.

이 두 교회에 이어 북한에는 앞으로 각 도마다 교회가 하나씩 세워질 전망이라고 평양을 다녀온 재미한국인 교역자가 전한 바 있다. 이 교역자는 북한의 한 고위층으로부터 순차적인 교회건립 계획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평양에는 신학교가 하나 있어 7, 8명의 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고 북한 전역에는 약 30명의 목회자가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듯이, 교회 건물을 짓고 형식을 갖추어 놓다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은 아니다. 요한복음 제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다.

봉수교회의 설립동기와 예배의식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가는 점이 많다. 북한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순수한 동기로 건립했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치적 이득과 관광객의 현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건립했다는 견해도 있다. 심지어는 한국의 개신교를 혼란시키기 위해 건립했다는 설까지 있다. 그 동기가 어떠했던 간에 북한은 지금 봉수교회를 통해 북한에도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대외선전효과와 재정이득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봉수교회의 예배의식에 관해서는 직접 이 교회의 예배에 참석, 대표기도를 한 재미한국인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견해를 전하고 있다.

‘기독교 평양복음화대회’에 열성이었던 한 목회자는 북한이 종교에 대해 다소 관용적 입장은 보이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또 다른 목회자는 함께 예배에 참석했던 북한의 교역자, 신도들을 가리켜 ‘바라보는 눈빛 속에서, 손과 손을 통해 흐르는 체온 속에서, 그리고 영과 영이 마주치는 속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는 반대로 봉수교회 예배를 세밀히 관찰했다는 한 목회자는 출석자들 가운데 젊은이들은 ‘무엇인가 어색해 보였고 훈련받은 듯한 인상을 느끼게 했다’고 전했다. 이 목회자는 북한의 ‘조선 기독교연맹위원회’인 고기준 목사의 집무실을 구경한 소감에서 ‘북한의 기독교를 총관장하는 그에게 기독교와 관계된 자료나 서적이 전혀 없었다. 어디서 구했는지 과선희 목사의 설교집이 딱 한 권 있을 뿐이었다’고 말했다.

봉수교회에 대한 견해가 왜 이렇게 다른가? 혹시 교단, 교파 간의 대립에서 어느 한쪽은 진실을 가리고 있는 소치가 아닐까 생각하면 슬퍼진다.

북한 선교에는 북한의 교회를 바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 우리가 여기서 참고할 것은 제3자적인 입장에 있는 외국의 언론이 한결같이 북한의 교회에 대해 허구성을 지적하고 있는 점이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작년 7월 9일자 평양세계청년학생축전을 취재한 피터 마스 특파원의 기사에서 ‘북한에 최근 등장한 교회와 성당은 북한의 종교자유를 증명하기보다 정치적 의도가 앞선 가식적인 것’이라고 보도했다. 마스 특파원은 그것을 증명하는 사례로 봉수교회 예배 참석자 4명에게 질문을 던진 결과 성경 청장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과 북한 카톨릭 협회의 박경수 사무총장이 ‘우리 카톨릭 신도들은 성령이 현세에서 위대한 지도자(김일성)에 의해 현실적으로 구현되었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인 10월 6일, 프랑스의 르 몽드는 북한의 기독교의 실상에 관해서 1년전 북한을 방문한 르 몽드 기자가 교회방문을 요청했을 때 북한측이 “일요일인데 목사도 쉬어야지요”라고 대답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에는 신부가 없고 목사는 성직자가 아닌 것이 확실하다고 단언했다.

또, 이보다 훨씬 앞서 서독의 프랑크 푸르트 룬트샤우는 82년 2월 24일자에서 북한의 고기준 목사가 ‘기독교 사상과 주체사상은 동일하다’고 말한 것으로 인용, 보도했다. 고기준 목사의 이 지론은 그가 작년 4월 미국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통일회의’에 참석했을 때도 피력되었다.

반석교회의 예배, 복음 활동에 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이 교회는 김일성의 외사촌 강영섭이 목사가 되어 담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일성의 의기는 원래 기독교 가정으로 외조부인 강돈욱이 하리교회

장로였고 외숙부인 강양욱은 목사였으며 강영섭은 강양욱의 아들이다. 그러나, 강양욱은 해방 후 조선기독교연맹을 창설, 기실 기독교를 탄압하는데 앞장선 장본인으로 국가 부주석에까지 오른 인물이다.

옛날 하리교회 자리에 세워진 반석교회는 북한 기독교 재건의 일환이라기보다 김일성의 모 강반석의 기념관이라는 성격이 더 짙다. 김일성은 기독교와 깊은 연관을 가진 가정에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그것은 본질에 있어 미신을 믿는 것’이라는 등 종교를 서슴없이 매도해 왔다. 그러한 김일성이 아직도 우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동기도 예배 의식도 모호한 교회가 한두 개 설립되었다고 해서 흥분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각종 우상 숭배가 성행한 곳이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숭배와 관련된 것들을 모두 없애야 했다. 우상숭배 의식을 도입하여 혼합된 형태로 여호와께 예배드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다.

북한 선교에서는 북한의 교회에 우상숭배가 혼합되어 있지 않은가를 살펴야 한다. 만일 그것이 제거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겉모양만 좋은 봉수교회, 반석교회를 통해 복음을 불어넣으려 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교회를 지원하는데 주력할 수도 있다. 북한의 가정교회는 500여 개가 된다고 한다. 적게는 7, 8명에서 많게는 20여 명까지의 신자들이 주위 사람들이 일하러 나간 틈을 타 다락방이나 산속에서 비밀리에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에만 해도 북한에도 2000여 개의 교회에 20여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었다. 이 많은 교회가 모두 공산정권의 탄압에 의해 없어졌으나 기독교인들은 지하에 잠복, 끝까지 하나님을 섬겨온 사실이 오늘날 가정교회로 나타나고 있다.

빛이 가리워진 어두운 북한 땅에도 흥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평화의 주, 진정한 메시야의 오심을 애타게 소원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는 그 곳, 그 가정교회에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헌신적인 기도와 선교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야 할 것이다. ■■■

본교회 5만교우

‘사랑의 쌀나누기 운동’ 대열에 앞장

“사랑의 쌀 한 틀로 훈훈한 이웃,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부설 “사랑의 쌀 나누기운동본부(대표 한경직목사)”와 한국일보사는 3월 1일부터 “쌀 풍년을 사랑의 풍년으로” 일궈 가자는 뜻을 담은 “사랑의 쌀 나누기운동”을 펴고 있다. 9년에 걸친 연이은 풍작으로 쌀은 남아 들지만 나눠 주는 인정은 부족한 것이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오늘의 세태이다. 따라서 이 운동은 남아 도는 쌀을

이웃사랑의 성금으로 사들여 불우 이웃과 결식아동,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나눠 줌으로써 우리 사회를 훈훈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회로 가꿔가기 위한 사랑의 실천 운동이다.

본 교회는 8일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에 1억원(1천가마)을 1차로 기탁했다.

한편 본교회는 1960년대 초부터 사회봉사부를 두어 봉사미의류등을 수집하여 불우한 이웃을 구제하는 일을 해 왔다. 1964년



3월 8일 이성희목사, 최창근장로, 상우장로가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 부를 방문 성금을 전달



봉사부가 한달에 한번씩 봉사헌금함을 설치하여 교우들의 자발적인 성금을 받아 불우한 이웃에게 봉사미 의류 서적을 나누어 주고 있다. 구호미 봉사미는 오늘날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으로 누구나 참여해야 할 물질의 나눔이 되고 있다. 사진은 1962년 봉사미 수집광경



5월 11일부터는 금호동 이촌동에 무료 급식소를 설치하여 매일 640명에게 급식하는 일을 2개월 동안 계속하기도 했다. 요즈음도 요구호 교우들에게 백미를 배급하는 일을 봉사부에서 해 오고 있다.

사랑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불우한 이웃과 북한의 동포 그리고 해외빈민들에게도 사랑의 쌀 나눔이 확장되도록 교우들의 사랑의 실천운동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영락보린원

정득만 윤병구 임정산 한진유 김계호 박문갑 이승달 배경자 이정자 박봉용 전유봉 최창근 최어숙 서정화 정우균 한종순 김영배 정치근 탁형구 김광득 이경우 고춘자 김묘희 혜심원 성애원 영락원이사회이사일동 동작구권사회 서초구권사회 제일은행후암동지점 명진 보육원 1부여전도회용산지회 사회복지법인구령회 서울 사회복지협의회 브렌따노후암지점 서울특별시장 다니엘학원 한국보이스카웃서울지부연맹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의회 사회복지시설총무상조회 한국어린이재단 삼성농아원 지방검찰청청소년선도위원회 영락여자신학교 영락고등학교 한국사회봉사회 제1남선교회 제2여전도회 군경유자녀원 영락기도원 성심모자원 아동복지시설협의회 합실유아원 한국부녀복지협의회 남부장애인복지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영락교회건축사회 청우자선친목회 베다니친목회 한국법인문제연구소 삼성농아원 영락교회성서학원 1기 사회복지협의회장

합실유아원

고상우 박순태 안순근 이춘기 한진유 오경자 이현삼 권태희 박근숙 홍갑은 권수임 차재칠 차진실 이옥희 김응천 이영선 이숙희 옥종구 나옥주 김수만 고진근 최찬훈 신명자 정근수 한경직 안경옥 정리숙 김매희

영락경로원

이정자 이정한 김연옥 세종미용실 화랑이발관 후원자 이애옥외 136명

영락모자원

고상우 박순태 안순근 김동호 한진유 오경자 심성자 이현삼 김귀혁 권태희 김애자 정연숙 이정숙 김태권 박옥녀 우병철 김창우 김영신 김정숙 차남수 차형로 권수임 오혜숙 김홍순 이옹삼 최춘식 차재칠 전연하 차진실 조영애 김양선 이옥희 김응천 이영선 김직순 문학수 구정석 윤동숙 오선주 이숙희 옥종구 정치근 조의도 나옥주 마선희 독고영훈 노강월 이정환

3·1 운동과 기독교



김 세 창
(집사·고등부교사)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고 기독교를 탄압하는 가운데서도 기독교 교단이 조직되고 신자의 수가 증가하였다. 3·1운동 직전에는 약 3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기독교인수의 증가는 3·1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반이 되었다.

우리

나라에 프로테스탄트교(개신교)가 들어온 때는 조선이 개국되던 초기였다. 그러나 개국은 되었으나 일본을 비롯하여 외세의 침입이 계속되었으며 조선은 참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때 선교사들은 기독교 진리를 전파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나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10년 마침내 한·일합방을 단행하였다.

우리 국민은 이제 절망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며 이러한 절망과 좌절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희망의 햇불을

들여 민족의 나아갈 길을 밝혀 주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 민족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스라엘 민족이 싸워온 것처럼 우리도 일본과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기독교 교리는,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사상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들은 우리 인간이 자유를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도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민족운동에 앞장서게 되었고 그것이 독립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를 살펴보면 그 지도인물 대다수가 기독교인이었다. 그리하여 기독교는 일본 침략에 항거하는 강력한 조직체가 되었다.

3·1운동 이전에도 일부 기독교 지도자를 중심으로 항일 민족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1896년 서재필 윤치호 안창호 등 기독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독립협회를 조직하여 독립사상을 고취시키고 있었으며 독립협회가 해산된 뒤에도 신민회라는 단체가 조직되어 항일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일본이 1910년, 105인사건을 일으켜 민족운동을 탄압하려 하자 기독교 청년들은 평양 숭실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국민회를 조직하고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후에 국민회 회원 일부는 미국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에 종사하고 일부는 국내에서 독립운동에 힘썼다. 이같이 기독교인 대부분은 항일사상을 품고 있었으며 독립운동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기독교는 독립운동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다.

한편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고 기독교를 탄압하는 가운데서도 기독교 교단이 조직되고 신자의 수가 증가하였다. 3·1운동 직전에는 약 3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기독교인 수의 증가는 3·1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반이 되었다.

1차대전 후 미국의 월슨이 민족자결을 주장하자 우리 민족도 독립하려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자주적이고

민족적인 청년들이 많이 있던 기독교계와 천도교계에서 활발히 전개되었다.

해외에서는 서재필 이승만 안창호 등 해외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독립운동을 전개하였고 한편 중국에 망명해 있던 김규식 선우혁 등 기독교 지도자들은 대한청년당을 중심으로 민족자결에 입각해서 독립운동을 준비하였다. 대한청년단은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하였고 선우혁을 국내에 파견하여 종교계와 독립 운동 가들과 접촉하게 하였다. 기독교의 3·1운동 준비는 상해의 대한청년단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에서 온 선우혁은 양전백 목사 이승훈 장로 등 관서지방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독립운동을 준비하였고 평양에서는 안세환 등이 기독교계 학교의 학생 동원을 계획하는 등 독립선언 및 시위를 계획하였다.

서울에서의 3·1운동 계획은 기독교측에서는 서울 YMCA 간사로 있던 박희도라는 청년과 남대문 세브란스 병원의 이갑성을 중심으로 준비되었다. 이갑성 박희도 중심의 독립운동은 기독 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3·1 운동의 대중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독립선언을 독립시위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1919년 2월 기독교 측과 천도교측과의 제휴가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은 교리상 문제 때문에 소극적 자세를 취하기도 하였으나 3·1운동 진행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은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독립운동은 서울 평양 원산의주 등 전국 12개 처에서 일어났는데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중심이었고 주요 도시에서의 독립선언서의 배포는 학생과 교회 청년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지방에서도 4월에 기독교회를 중심으로 독립 시위가 전개되었다.

3·1운동 이후 전국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평양 감리교회 목사 이규갑, 공주 감리교회 목사 현석철, 서울 장로교회 목사 박용의 등이 중심이 되어서 천도교 대표와 더불어 국민 대회를 열고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한성임시 정부」라고 하였다. 이 임시정부 요원 중에는 많은 기독교

지도인물이 있었다.

임시정부가 조직은 되었지만 국내에서는 활동이 어려웠으므로 상해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이규갑을 대표로 상해에 파견하였다. 그가 거기에 갔을 때에는 이미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는데 여기에도 이승만 안창호 김규식 등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 그러므로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후 교회는 이 정부를 우리의 정부로 믿어서 절대적 지원을 보냈고 대부분의 군자금(軍資金)은 교인에게서 나왔으며 교회는 임시정부와 국내외의 연락 임무를 담당하였다.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었으며 3·1 운동 준비 단계에서부터 전국으로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의 역할은 매우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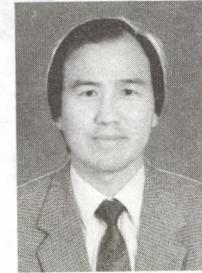
3·1운동에 관한 총독부의 통계에 의하면 초기 1200여 회의 운동 중에서 주동 세력이 뚜렷한 340회를 지역별로 나누면 311개 지역이었는데 이중에서 기독교가 78개 지역, 천도교가 68개 지역, 기독교 천도교 공동 주동이 42개 지역으로 나타나 있다. 3월~4월의 체포자 가운데 17%가 기독교인이었고 투옥된 사람 중에서 약 21%가 기독교인 이었다. 전반적으로 3·1운동에 뛰어들어 이를 주동하거나 체포 구금된 사람 가운데 기독교인의 비율은 전체 참여자의 20%에 달하였다.

이로써 우리는 3·1운동에 있어서 기독교인이 얼마나 깊이 참여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일본은 기독교에 대해 많은 박해를 가하였다. 29명을 불태워 죽인 수원 제암리교회의 학살사건과 평남 장서의 교회 학살사건을 비롯하여 교회당이 47동이나 파괴되었고 1919년 6월 30일 현재 151명의 교역자가 투옥되었으며 그밖의 기독교 단체에 여러 형태로 보복이 가해졌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3·1운동에 참여한 목적과 의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민족의 독립이었으며 한국 교회가 일제의 학정 아래에서도 민족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었으며 민족의 얼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했다는데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



찬양의 동기



신 중 현 (동대문교구담당·음악부 지도목사)

1. 근본적인 몇 가지 오해들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흔히 들을 수 있는 기도이다. “○○○ 성가대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듣는 이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그냥 지나가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으나 그렇지 않은 것이, 찬양은 성가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석한 회중 전체가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가대원을 제외한 회중은 청중이며 감상자일 수 있는가? 비록 그 받는 바가 “은혜”란 말로 표현이 된다 할지라도 만일 그렇다면 그 찬양을 받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회중이 되거나 아니면 그 시간 회중은 예배의 자리에서 쫓겨나 버리는 셈이 된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글자대로 “보는” 자리으로 쫓겨 나가게 된다는 말이다.

성가대의 찬양은 예배에로 나아온 회중 전체가 더욱 정성을 담아 드리기 위해 그 대표를 뽑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회중 전체의 찬송 중 하나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야 하리라. “뽑아 세운 (우리가 우리의 대표성을 부여한) 성가대를 통해 준비하여 드리는 우리 모두의 찬양을 주여 받으시옵고 아버지의 기뻐 받으심이 곧 정성으로 준비한 우리 모두의 기쁨이요 은총이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또한 모든 찬송이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한 방편이 될 수 없음이 금방 이해된다. 흔히 뜨겁게 찬송을 불러 말씀을 들을 준비를 시킨다는 생각들을 하는데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그 외에 어떤 목적으로 가질 수 없다. 은총에 감사하는 방편이요 은총의 드러냄일 뿐이지 은혜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며 은혜를 끼치기 위한 방편이 아니다. 더더구나 우리의 홍을 돋구거나 감정해소를 위한 도구일 수 없다. 그러므로 “준비 찬송”이란 말도 불가하며 “찬송 한 절 부르면서 자리 정돈 합시다.”란 말도 맞지 않는다. 올겐 연주자에게 우리가 쉽게 알아 들을 수 있는

찬송가만 연주해 달라는 회중의 요청도 맞지 않는다(참고하고 고려할 수는 있다).

예배도 마찬가지이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것’이지 예배를 드림으로 그것을 도구로 삼아 그의 호의나 선물이나 흔히 말하는 축복을 얻어 내고자 함이 아니다. 예배는 사람들의 덕성 함양을 위한 방면이 아니며 예배에는 좋은 말씀, 좋은 음악 들으러 가는 것이 아니다. 예배는 예배 자체로서 완성되는 것이지, 예배드린 결과 어떤 것을 얻음으로써 완성되는 게 아니다. 성수 주일은 복 받은 증거이지 복 받기 위한 일차 조건이 아니다. 이렇듯 찬송은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다.

2. 복 받은 공동체

교회는 ‘복 있는 사람’들이 그 복 있음에 대한 감사로 목적으로 하여 그 복의 근원 앞에 모여 이룬 공동체이다. 시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로 되어 있다. 우리는 이것을 눈으로는 분명히 복 있는 사람으로 읽으면서 가슴으로는 복 있을 사람으로 읽고 있다. 말을 바꾸어 보면 그 차이가 더욱 분명해 진다. 복 받은 사람과 복 받을 사람으로 말이다.

시1편을 이렇게 읽어보라 “복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보았더니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살더구나. 복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사는가 봤더니 죄인의 길에 서지 않더군 그래. 복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사는가 봤더니 하나님 없다하는 자리에는 죽어도 앉지 않더군. 그리고는 복 받은 사람들,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살더군. 그렇게 그 사람들은 꼭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아무리 어려운 때에라도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열매 꼭 맺어내는 삶을 살더군 그래.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곧 복 없는 사람, 복 받지 못한 사람들은(못 받을 사람들이 아니다) 이리 혹 저리 혹 꼭 바람에 까불리는 겨처럼 살더군. 그러니

그런 삶의 끝이야 더 보나마나지, 꼭 봐야 알겠어?”
이렇게 교회는 복 받을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복 받은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그 복은 하나님 자신이며 믿음 자체인 것이다. 교회는 곧 하나님 있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증거가 예배인 것이다. 누가 그 부모와 함께 살면서 감사하지 않으며 기뻐하지 않으랴?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심’이 내게 있어 가정 생활의 시작이요 그 계속은 함께 삶이요 그 내용은 만남과 대화에 있음처럼,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예배의 중심이며 그분과의 만남이 예배이며 우리편에서 그것은 찬양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요 찬양 있는 공동체이다. 그렇지 못할 때 생존을 위한 조건일 뿐인 매일의 식탁이, 사랑 있을 때 분명한 은총의 사건이 되어 가정의 매식탁에서 자녀는 식물만 만나고 얻는 게 아니라 부모를 만나고 부모의 사랑을 만남처럼 이렇게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식탁에 둘러앉음이 예배이다. 복 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곧 한끼 식사를 구해 식탁에 앉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쁨이 없다. 허기를 메꾸기 위한 수고와 짐뿐이지. 복 받은 이들에게만 찬송이 있다.

3. 이렇게 부르세요

“찬송을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드리세요.” 학생들이 부르는 복음성가의 한 절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찬송을 드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니 “생긴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가 더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느라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이 벌써 있었으며 마지막 원수를 사망으로 설정하신 주님의 부활사건이 벌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내용을 크게 보면 “계시”와 “응답”이라 할 수 있고 좀더 나누면 찬송, 기도, 성경(말씀), 봉헌, 성찬 등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세분할 수 있지요. 이 예배의 각 요소 중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으나 특히 우리 편에서 볼 때 찬송이 수위를 차지합니다. 늘 인용되는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 지으셨다는 말씀(사43:21)과 “제물 가져 오랬나? 감사로 제사 드리라 했지.”하는 말씀들(시50:7~15등)이 이를 입증합니다. 또한 예배에 있어 말씀의 대언 속에서 계시 사건이 일어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임재하신다면 찬송은 그에 대한 응답으로 경배요 제사요 신앙심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음에 대한 드러남이며 자녀됨의 드러남이지요.

예수를 정말 잘 믿으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쁨은 나누고 싶어지는 것이요, 그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나누는 것이 가장 분명한 것이며 또 먼저 그래야 이웃과도 나눌 수 있겠구요.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응답의 형태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봉헌과 기악까지 포함하여). 그런데 회중찬송은 교회음악을 대표하는 대명사가 되었지요. 회중찬송은 성전 예배가 본격화되면서 성가대가 찬양으로 해왔던 것인데 종교개혁 이후 회중의 예배 참례의식을 앙양하기 위해 부활되었습니다.

역사의 방향을 “자유인구의 저변확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예배인구”的 저변확대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저변이야 온 우주 만물에까지 이를 것이요 예배인구란 곧 “찬양인구”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온 회중이 다 성가대원의 실력을 갖추었으면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것이 어렵다면 정신만은 그렇게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칼빈은 찬송을 기도의 일부로 보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도가 “비난수”(정화수를 떠 놓고 복음 빔)와 동일시되어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찬송에도 그와 같은 샤머니즘의 혼란이 따라옵니다. 샤먼의 무가(巫歌)는 일종의 종교 음악으로서 항상 애조를 띠고 늘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부르는데 기독교의 찬미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인간들의 쓸 것을 예비하고 우리의 기도까지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항상 감사의 노래를 드릴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대를 걸고 또는 무엇인가 얻으려는 태도로 찬송을 부른다면 샤머니즘의 영향이라고 지적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기도의 예를 한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당신만을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시다. 비록 문장은 나의 요구를 말한 것이 되지만 내용상으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아닙니까? 또 그렇게 살고 있음에 대한 확신과 결단과 감사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어려움을 없애 주세요”보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게, 찬송할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난 정말 복 있는 사람임을 감사합니다.”로 바뀔 때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거기 있겠지요.

총신대 김의자 교수는 찬송의 바른 방법을 ① 바른 자세로 ② 정확하게 ③ 알맞는 크기로 ④ 알맞는 속도로 ⑤ 가사를 틀리지 않게 ⑥ 좋은 목소리로 ⑦ 밝은 표정으로 ⑧ 반주에 맞추어서 ⑨ 가급적 합창으로 ⑩ 하나님을 묵상하면서라고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찬송가를 찬미가 복음찬미가 복음성가로 분류하면서 이것들을 다 그대로 찬송가라고 부르자 하기도 하고 이 전체를 “성가”라고 하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만을 찬송가라고 하는게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으며, 극단적으로는 앵글로 색슨 부흥사들의 노래는(주로 복음찬미가나 복음성가를 말하는데 우리 찬송가의 상당한 부분이 이런 것들이다) 전부가 그리스도교 예배의 문화적 책임에 대해서 배신을 한 것이라는 입장도 있습니다만 이만큼 논의했으니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연 성령이 함께 하시느냐입니다. 인간이 그 노래를 누리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 되느냐의 갈림길이 거기겠지요.

또 찬송가를 찬양의 찬송, 기도의 찬송, 감사의 찬송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모든 찬송은 예배시에 일어서서 불러야 할 것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 사실이 분명해지면 예배용 음악인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부를 수 있는 성가인지도 구별이 될 것입니다. ‘성가’란 ‘종교음악’과 함께 쓸 수 있는 말로 이해해야겠지요 ‘카톨릭성가’ ‘불교의 성가’란 말들이 다 가능한 말들 아니겠어요?

영락동산 성묘객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 일 시 : 1990년 4월 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 운행구간 : 미금시청 주차장(금곡)에서
영락동산까지
- 배차시각 : 10분 간격으로 운행
- 요 금 : 무료

영락동산 위원회

☎ 277-7491(사무실) ☎ (0346)64-8123(영락동산)

4. 마지막 오해

성령은 3위중 1위이신 ‘또 다른 하나님 자신’(God-God-self, He-Himself)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다’, ‘성령안에 있다’면 ‘그분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지 그분의 능력의 한 조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not His Power). 이 점이 오해되면 ‘삼위 일체’가 무너지는 심각한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성도는 “복”있는 사람으로서 먼저 찬양의 대상인 “그분”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찬양의 재주, 방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찬양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최선의 것으로 방법지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맺는말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체가 ‘예배적’입니다. 예배의 주인이 함께하시는 삶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그것은 정해진 ‘예배’를 드림으로 확인되고 지속적인 능력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체가 ‘찬양적’입니다. 이 또한 ‘찬송’을 드림으로써만 확인됩니다.

예배적인 삶을 살아야 하지만 모든 게 예배는 아니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성가라고, 교회음악이라고 다 ‘찬송’은 아닙니다. 나를 위한 수단이 될 때에는 아무리 훌륭한 성가라고 할지라도 찬송이 아니요 목적이 될 때에는 설사 단순 조합할지라도 성령께서 이를 찬송되게 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부르십시오. 믿음만이 응답입니다.

찬송은 내가 은혜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따라오는 것이며 이미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성악가일지라도 찬송가를 부르기가 훨씬 어려운 까닭이 어디 있을까요? ■■■

성묘객 협조사항

- 자가용 이용 성도는 주차시에 꼭 주차장을 이용하시고 도로변 주차시에는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 주십시오.
- 일체의 화기(버너 등)는 금지합니다.
(산불조심)
- 기독교 의식 외는 절대 금지합니다.
- 묘적부가 컴퓨터에 입력됩니다. 이를 위하여 당일에 나누어 드리는 방문자카드를 기입하여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우

리의 년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
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
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0절 이하의 말씀인데 ‘매일 성경 읽기표’에
나온 것을 외워보니 너무도 실감이 났다. 살같이 빠른 광음이라더니…

23년전, 이 구절을 새문안교회에서 주최하는 전국 성경암송대회에 나가서 외울 때는 40대
중반의 나이였는데 어느덧 70고개의 막바지, 믿어지지 않는 나이가 되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나는 나이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말인가? 곰곰 생각해 보면서 그 원인을
찾게 되었다.—“말씀을 글자로 머리에 새기고 입으로만 외운 탓이구나.”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하고 죄책감마저 느끼면서 회개하게 되었다.

몇 해 전까지만 하여도 100장이 넘는 성경을 외운답시고 매일 몇 장씩 정해놓고 암송하던
성경을, 바쁘다는 핑계로 버스 안에서 두어 장씩 암송하여 때우기가 일쑤였고, 잠언을 날
자대로 한 장씩 읽지 않고는 밥을 안 먹겠다고 작정한 지 8년이 되었지만, 얼마나 대강
읽어넘기곤 했는지, 외우기는커녕 읽는 것도 서툴다.

성경암송을 대회에 나갈 때만 기를 쓰고 외우는 나쁜 버릇이 있어, 항상 되풀이하지 않으면
많이 잊어버리게 되고, 게다가 성경암송대회에서 특상을 여러 번 받은 사람은 양보하는 것이
상례여서 자격상실이 된 셈이라, 지난해부터는 외운 성경을 되풀이하려고 한달 시간표를
짜서 매일 외우고 있다. 요즘은 골로새서를 다시 외우고 있는데, 작심삼일(作心三日), 역시
힘들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목사님들이 성경컴퓨터니 걸어다니는 성경이니 하면 은근히 어깨가
‘으쓱’했었는데 지금은 다르다. 혹은 성경박사라면서 질문받고, 당신은 도대체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기에 그렇게 외울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면, 숨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워진다.

정말로 나는 지금까지 애무새처럼 말씀을 달달 외우기만 했다. 칭찬받는 것만 좋아했고
받은 은사에 감사하기보다 자랑하기에만 바빴다. 암송을 하면서 가끔은 기슴이 뜨거워지고
감격에 사로잡히기도 했지만,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주님의 고난을 예언한 이사야
53장을 암송하면서 단 두 번 울었을 뿐이다.

산상수훈을 청산유수처럼 외우면서 바리새인의 외식을 미워했으나 내 심중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았는가. 그런 내가 어떻게 암송으로 남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생각하니,
이제는 청중 앞에 나서기조차 두려워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고백할 것이 있다. 시편 19장 10절 말씀에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했는데 내가 과연
말씀을 금보다 더 사모했으며 말씀을 꿀보다 더 달게 읽었던가?

나는 이제부터는 진실로 말씀을 날마다 음미하면서 읽고 암송할 것이다. 그리하여 멀지
않은 날, 통일된 고향에 가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내가 외운 100여 장의 성경말씀을
뜨거운 기슴과 음성으로 암송할 것이다. 간절한 기대와 확신으로



김 귀 혜

(권사·1부여전도회

성가대원·구역장)

*'68년 새문안교회주최 교회
80주년 기념행사로 열린 전
국 성경암송대회 3년 연속
우승.

*'85년 100주년기념 전국성경
암송대회 금상 수상

자신의 날을 계수하라



1947년 대광고교에 몸담은 뒤 교육에 40여년 전생애를 바친 송성찬 장로는, 교회와 학교의 역사를 짐작하고자 하는 여망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년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시편90: 10-12)."

선조(先祖)

이 말은 후손들의 평생에 잊혀질 수 없는 말이다.

역사의 귀감이 된 선조를 둔 인간은 내내세세 그것을 영광으로 삼을 것이며, 역사에 오점을 남긴 인간은 두고두고 모욕과 수치로 낮을 들지 못하고 살게 된다.

송성찬 장로!

본교회 1회 장로이시며, 현 영락학원 이사장 이시다.

허나, 이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면 그보다 먼저 떠올려야 할 분이 있다.

송병조 목사!

감히 외경을 무릅쓰고, 이분의 함자를 언급 하려는 것은...

이분이 바로 송성찬 장로의 선친이시며, 우리 믿음의 조상인 동시에, 우리 역사의 찬연한 영광의 빛을 남긴 분이기 때문이다.

빛을 남긴 사람들…!

그 빛의 후광이 아니었다면 인류는 오늘의 자리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송병조 목사, 잠시 이분에 대해 언급을 하기로 한다.

1877년 평북 용천에서 나셨고, 1914년 평양 신학교를 나오셨다.

혜진리사랑



1919년 3·1 독립운동 당시 향리에서 독립운동을 주관하셨고, 그 이후에는 독립군을 위한 군자금 모금운동도 하셨다.

간악한 일제의 핍박을 피해 민주로 망명하셨으며, 신한청년단의 대표와 임시정부 의정원부의장, 국무위원, 교민단 정부위원장, 임시정부 재정장관, 의정원 의장, 임정고문……등을 역임하셨다.

또한, 손정도, 이원익, 김병조, 김인전 목사 등과 함께 대한야소교 진정회를 만드시기도 했다.

허나, 그토록 염원하시던 조국 대한의 광복을 보지 못하시고 1942년 2월……혹한의 광풍이 물아치는 중국 땅에서 소천하시니……이 어찌 안타까운 일이 아니랴!

이 자랑스러운 우리의 선조께 정부는 1963년 건국훈장 국민장을 추서하였다.

송성찬 장로.

위대한 애국자의 후손으로서 이분이 살아오신 삶의 역정이 어찌 단순하기만 했으랴?

민족과 조국을 위해 가솔을 외면할 수 밖에 없었던 선친의 망명 후, 잔인무도한 일제의 손에 의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어머니의 고문광경을 눈앞에서 보아야만 했고, 선친을 찾아 만주로 떠난 생애의 일부는 늘 부족함으로 일관된 생활이었다.

너무도 위대하신 아버님이셨기에, 송성찬 장로는 감히 아버님의 의업(義業)을 잊는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다.

두 번이나 신학대를 졸업하시고도 목회를 결심하시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사도로서 걸으셨던 선친의 생과 자신의 생을 비교할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송성찬 장로!

오직 그는 외길만을 택했다.

이 땅의 근대사에서 외면당한 우리 민족의 비극은 바로 무식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민족의 선각자들은, 우리 민족이 배우지 못한 탓에 겪어야 했던 수모와 치욕에 절치 부심할 수 밖에 없었다.

송성찬 장로의 외길 선택은 바로 그것이었다.

1947년 대광고교에 몸 담으신 뒤 외길…40여년.

지금은 학교법인 영락학원의 이사장으로 계신다.

송성찬 장로…1911년에 나셨으니, 우리 나이로 팔순이 되셨다.

허나, 이분의 그 어디에서 팔십객의 쇠잔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송성찬 장로를 처음 대하면서, 문득 꽃꽂한 대나무를 연상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장로님께서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신념으로 가지고 계셨던 좌우명은 무엇입니까?

• 성실입니다. 삶의 길에도, 일에도, 믿음에도 성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실…지극히 쉬운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의 실천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성실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으리라.

—“원로목사님과 함께 본 교회의 산 증인이신데, 오늘날의 영락교회가 있게 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원로목사님의 능력입니다.

송장로께서는 원로목사님의 능력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계셨다.

첫째, 생활화의 설교말씀…거짓없는 삶의 모습 이그대로 말씀에 투영이 되었다는 것과,

둘째, 감사의 봉헌자세…언제나 겸손하고 온유
하신 모습,

세째, 교회의 인화단결…독선이나 아집에 사로
잡히지 않는 평화속의 화해정신.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영락교회가 있게된 가
장 큰 동기인 것이다.

—“원로장로로서 교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은?

- 교회의 역사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요르단 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교훈한 것과 같이, 과거의 역사를 망각한 민족은 또 다시 역사의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거대한 영락 교회의 표피만을 보고 교회의 역사성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본교회가 있기까지의 무수한 땀과 고통의 시간, 순교자의 피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역사가 어언 반세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역사관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교회의 역사!

뿌리를 찾는 운동은 외면되어서는 안된다. 오늘의 우리가 무엇을 남겼는가는 …후일의 자손들에게 역사로 증거하는 길인 것이다.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었겠는가?

—“현재의 영락교회가 안고 있는 교회의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다만, 크고 보람있는 확신에 찬 미래를 위해 나아갈 때,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리는 어리석음은 벼려야 합니다. 당회의 분열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회장 목사는십자가를 진다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고, 당회는 나무위에 올려놓은 사람을 흔들어서 떨어뜨리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우월적인 욕심은 죄를 짓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교훈을 망각해서는 안됩니다.

송성찬 장로는 확신에 찬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결코 인간의 욕정에 매달려서는 안되리라. 작은 것을 벌려서 크게 말들려고 해도 안되며, 큰 일을 숨겨 작게 은폐해서도 안된다는 말씀이셨다.

지금은 갈등의 시기가 아니다.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확신에 찬 미래는 바로 이 시기에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 남은·여생에 하시고 싶은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 비재천학한 몸이나, 힘이 있는 동안에 교회와 학교에 대한 역사를 글로 남기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벌써 수 년째 혈압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송성찬 장로. 아직은 붓을 잡을 힘이 있으시다면 대쪽같은 표정에 미소를 머금으셨다.

이제 얼마나 생의 나날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허나, 아직도 절제와 근신, 사랑과 인내를 힘주어 강조하시는 모습을 보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분의 삶이 얼마나 경건한 것인가를 새삼 느끼게 되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디도서 2:1-2)”

송성찬 장로!

팔십 평생에 이분이 축재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슬하의 두 딸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고, 지금은 노부부만이 학교 사택에서 고즈넉한 생활을 하고 계신다.

대나무와 같은 외모와 성품……!
남으신 생애에 더욱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으시길 바라는 마음만 간절할 뿐이다. ■

영락보린원 역대원장



한경직
(설립자 1939~1963)



정득만
(현재 영락원 이사장)



유의성
(2 대 1963~1966)



임병수
(3 대 1967~)



김이석
(4 대 1968~1972)

사랑과 믿음을 키워주는 아름다운 집

영락보린원 안내

우

리들 곁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
웃들이 있다. 특별히 사랑과 믿음 속
에서 보호받으며 건강하고 밝게 자라가야 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뜻하지 않은 여러 문제로
불우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이와같이
불우하고 자칫 소외되기 쉬운 아동들에게 사랑
의 손길을 펴기 시작한 영락교회 아동복지사업
의 하나인 영락보린원이 50주년을 맞이했다. 그
동안 833명의 아동이 사회로 배출되었다.

1939년 5월 고아들을 위한 안식처로 설립된
보린원은 현재 17명의 직원과 114명의 원아들이
올해 2월 준공한 새 원사의 최신 시설과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더욱 밝게 생활하고 있다. 현재
보린원에서는 만 3세부터 18세까지의 고아나
결손가정으로 인한 요보호아동을 수용, 양육하고
있다.

■보린원 입원기준

- ① 부모 사망한 18세 미만의 고아
- ② 편모, 편부 보호 중 병으로 생활이 곤란한
18세 미만의 아동
- ③ 기아로 발견된 무의무탁한 아동

■현황

- 최대수용인원 150명(현재 114명)
- 미취학: 5명 국교생: 36명 중학생: 34명
고등학생 33명
- 직원 17명(원장 생활지도 관리인 간호사
보육사 취사담당 세탁)



정우균
(5 대 1972~1977)



김상익
(6 대 1977~1988)



우성세
(7 대 1989~현재)

보린원 생활 안내

성

경에 나오는 인물 이름으로 8개의 집
(요셉집, 마리아집...)을 구성해 한
집에 남자 4~5명, 여자 초·중·고 7~8명이
보육사 1명의 지도아래 한 가정을 이루어 생활
하며, 남자 중·고생들은 2명의 남자 전도사의
지도로 양육되고 있다.

아침 5시30분 기상을 알리는 찬송가 소리에
눈을 떠 새벽예배를 각 집별로 드리면서 원아
들의 하루 일과는 시작된다. 각자 학교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가장 기다리던 식사를 마친 후
대학생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과 저녁공부를
하고 9시에 취침에 들어간다. 중고생은 도서실
에서 공부를 한 뒤 하루의 생활을 마친다.

학교공부하는 것과 더불어 신앙교육에도 큰
중점을 두어 수요일·주일예배를 드리고 있
으며, 매일저녁 새로 마련된 기도실에서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다.

주말에는 운동, 가족회의, 오락회, 성가연습
등의 정서활동을 하며, 교회 권사님이나 성도께서
아이들의 할머니 또는 이모가 되어 정기적
으로 방문하여 큰 기쁨을 주고 있다.

감사의 생활과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자립심과 인내력, 그리고 이타정신을 심어주는
봉사생활을 근본 교육목표로 운영하고 있는 보
린원은 아동들에게 잃어버린 그들의 따뜻한 가
정을 원생활을 통해 되찾아 주어 곧고 바른 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기족적 분위기를 만들고자
힘쓰고 있다.

또한 자립에 필요한 기능교육의 일환으로 타
자실 운영 등 직업훈련과 시대에 맞추어 컴퓨터
교육도 확장할 예정이다.

앞으로 기독교 전문 사회복지기관으로의 역
할을 명실상부하게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살아있는 사랑의 역사,

보린원 신축예배를 드리며

영락보린원

현 원생 130여명. (원장 : 우성세 집사)

후암동 370번지에 위치한 사랑의 집이다. 보린원의 역사는 어언 반세기에 접어든다.

1939년 5월,

한경직 원로목사께서 평북 신의주 제2교회에서 시무하고 계실 당시, 이 땅의 불우한 어린이들을 위해 세우셨다. 당시, 남신의주 광성면에 대지 4,000여평을 구입, 고 정용순 권사와 함께 아동관과 노인관을 건립하여서 원아 20여명을 데리고 출발하신 것이 보린원의 시작인 것이다. 허나, 역사의 격변기속에서 보린원은 1947년 남쪽으로 옮겨야 했고, 1947년 해방 전에 일본인들이 경영하던 보육원(구 가마꾸라) 자리에 영락보린원이 다시 세워진 것이다.

1948년 5월,

서울 영락보린원으로 정식 시설 인가를 받았고, 1950년 6월 25일의 사변으로 인해 1951년 원아 60여명을 데리고 제주도로 피난을 하였다가, 1954년 다시 서울로 복귀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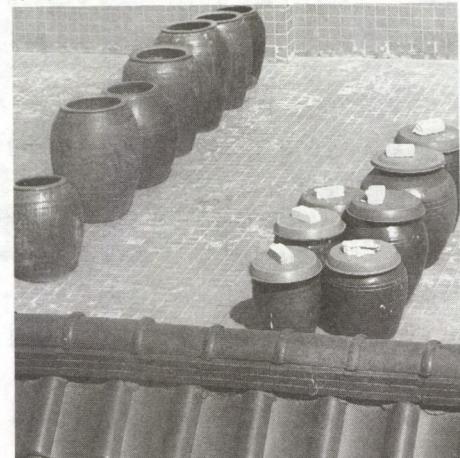
이 땅에 전쟁이 끝난 지도 어언 40여년이 지난 지금, 그럼에도 보린원은 계속 존재하며, 오히려 더 많은 원생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오늘 (1990년 2월 28일) 건물 신축 준공 예배를 보았다. 이 보린원이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 하셔서 이 땅에서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이었고, 보린원을 만들기 위해 애쓴, 지금은 고인이 된 많은 이들(하늘나라에 있을 것이라고 원로 목사님은 확신에 찬 음성으로

말씀하셨다.)과 현존하여 계속 사랑의 마음을 지닌 이들이 성경적으로 사랑과 헌신을 가지고애쓰심을 감사한다는 원로목사의 말씀과 같이 오늘도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이들이 있기에 보린원은 더욱 튼튼히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이라.

그러면, 보린원에는 어떤 아이들이 살고 있는 것일까?

- ▣ 부모 사망한 18세 미만의 고아
 - ▣ 편모, 편부 중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생활이 불가능한 아동
 - ▣ 기아로 발견된 무의무탁한 아동들이다.
- 보린원은 우성세 원장을 위시하여, 생활지도, 관리, 간호사, 보육사, 취사담당, 세탁 등 어린 원생들을 위해 꼭 필요한 17분의 사랑과 정성의 손길로 키워지고 있다.

식당 옥상에 놓여있는 김치독 간장독은 항상 가득채워 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찌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팽과리 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전 13:1, 13:3)

—“우리 아이들을 위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의 참 일꾼으로 예쁘게 키우겠다는 우성세 원장의 그 소탈하고 밝은 모습에서 오늘 보린원 원아들의 모습이 다시 보이는 듯했다.

이 은주(염광여상2)는 12살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보린원에 오게 되었다.

- ▷ 몇살 때까지 이 곳에 있게 되니?
- ▷ 18세가 되면, 독립하게 되어 있어요.
- ▷ 여성(女商)을 택한 이유는?
- ▷ 취직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요.
- ▷ 솔직하게, 여기에서의 생활은 어때?
- ▷ 너무, 좋아요.

여러 동생들과 함께 사는 것이 참 즐거워요.

은주와 함께, 어린 원생들도 새 건물이 생겨서 무척 좋은 것 같았다. 체육실이 있어서 좋은 아 이도 있었고, 독서실이 좋다는 아이도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기도실이 있어서 좋다는 아이들의 표정이 무척 밝았다.

보린원에는 언니, 동생들이 함께 잠을 자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를 짜 놓았다. 방마다 이름이 있었고, 네살박이서부터 열 일곱 살까지 골고루 안배하여 서로를 도우며 살아 가도록 되어 있다.

1939~1990, 한반도에는 단 한 해도 편안할 날 이 없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면서도 보린 원을 운영해 오신 영락교회 교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사회에 깊은 기여를 하고 있는 보린원 출신들에게도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건물 신축 준공 예배에 참석한 용산구청에서



이은주 양과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같은 방의 동생들이 무릎을 꿇고 대화를 경청하고 있다.

나온 분의 축사의 일부다. 원로목사님이 특별히 언급하셨던 말씀이 있다.

—“이런 기관을 설립하게 된 이유는 전도, 교육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불우한 사람들을 도와 같이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더불어 영락 보린원을 통해 이 사회에 여러 기관이 생겨났음을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다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으셨다.

“이북에 가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 중 제일 기대되는 것이 처음 보린원생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것이라며, 목사님은 알아보지 못해도 그 원생들은 분명히 알아볼 것이라며 눈시울을 뚫으셨다.

이데올로기가 무엇인가?

빈부의 격차가 무엇인가?

왜 고아가 생기고, 기아가 발생하는가?

어른들로 인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보린원으로 들어와야 하는 어린이들……

과연 이들이 밝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줄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빨간 4층 벽돌집 위로

너무도 푸르게 펼쳐져 있는 맑은 하늘……

하나님!

진정으로 이 어린이들을 돌봐 주소서!

하늘을 우러러 티끌 하나 남기지 않는 어린 이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

김 경 숙 기자

화
보

영락보린원 건물변천사

(1947년~1990년)



■ 신축원사의 특징과 장래사업 계획

- ① 현대화된 아파트형태의 숙소(1숙소당 32평으로 방 3개 거실 화장실, 아동 15명 보육사 1명 거주기준)로 가족적이고 쾌적한 분위기
- ② 다양한 교육적 부대시설 구비로 아동 교육 향상을 도모
- ③ 지역주민 봉사사업의 하나로 인근지역의 맞벌이 부부, 저속득층 가정을 위한 탁아원 운영 계획
- ④ 청소년 상담사업 및 도서실 개방 운영
- ⑤ 예식장 및 회의실 무료대여

■ 신축건물 안내

- 대지 1,028평
- 연건평 983평
- 구관 334평

층별	용도
지하	체육실 이발실 목욕실 세탁실 보이러실 창고
1 층	사무실 예배실(강당) 탁아원 회의실 상담실
2 층	숙소(아파트형태, 숙소당 32평×4집) 회의실 식당 창고
3 층	숙소(4집) 직업훈련실 물품창고 (타자 및 컴퓨터)
4 층	숙소(3집) 도서실(50석) 기도실 자원봉사자실

■ 시공자/삼풍건설산업(주)

(대표 이준 집사)

■ 설계 및 감리/피 에이 건축사 사무소



1990년 2월

웅장하고 아름답게 모습을 드러낸 신축 보린원



1947년

후암동 현위치에 콘셋트 막사 25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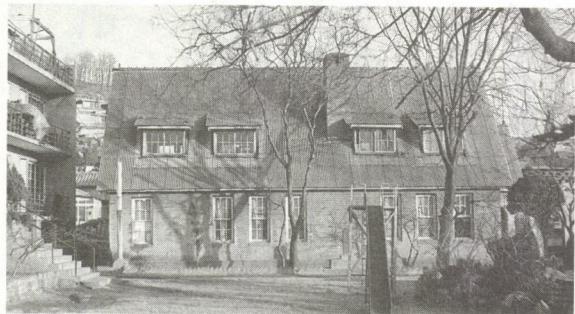
보린원50년의 온갖 풍상을 지켜 온 고목나무가
원사 화장신축에 밀려 어디론가 사라져 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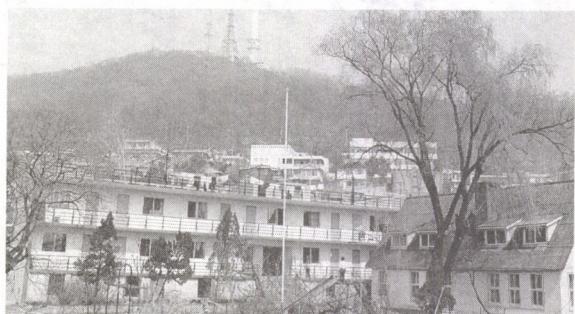
1989년 6월

낡은 원사를 신축하는 기공식





1949년
재미동포들의 성금으로 건축



1959년
남자관 원사 건평144평, 현재 이 자리에 신관 건축



1954년
신축된 여자관 건평 335평



1956년
규모있게 자리잡은 보린원 전경



1955년
본관신축현장 지붕에서 휴식을 취하는 인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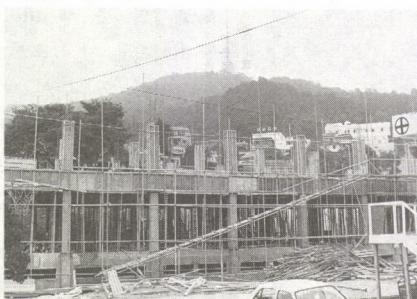


1951년~1954년
6·25 피난시절 (제주도 한림)

1989년 7월
파기 기초공사

1989년 9월
튼튼한 기초에 골조공사가 한창 진행

1990년
본관 뒤쪽으로 연결된 아담한 식당



성서와 관련된 지역을 따라

— 이집트 편 —



신기찬

(서초교구담당·홍보출판부 지도목사)

교

회의 허락을 받아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3일까지 장로회신학대학 박사원(원장 정장복 박사)이 주관한 성지순례 그룹 일원으로 참여하고 돌아왔다.

첫번째 방문한 나라는 이집트(성서에는 애굽으로 되어 있음)였다. 서울에서 동경, 마닐라, 방콕 공항을 경유해서 거의 하루 걸려 이집트 카이로공항에 도착하였다.

새벽에 도착하여 입국 수속을 밟는 동안 호객을 하고자 모여던 청년들이 일본말로 접근해 왔다. 한국사람이라고 하자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를 하였다. 올림픽 이후 우리나라가 많이 소개되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집트는 사회주의 국가인데다 GNP가 85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인지 지금까지 경유해 온 공항보다는 초라했고 입국수속도 원활하지 못했다. 현지 안내인의 안내로 구카이로를 지나 숙소인 피라밋호텔까지 40여분 버스로 달리는 동안 창밖으로 카이로 시내를 구경할 수 있었다. 기원전 3천년부터 형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옛날 것과 현대 것이 공존해 있었다. 구카이로의 건물과 도로는 정비되지 않은 모습이었고, 이를 아침 하루의 시작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남루한 옷차림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노점에는 각종 과일과 둥글고 길쭉한 빼이 흙먼지에 노출되어 있었다.

구카이로 시내를 지나는 동안 엄청난 면적의 묘지단지를 보았다. 묘지의 생김이 우리나라처럼 봉분이 아니고 마치 재개발을 위하여 기존 넓은 집을 부숴놓은 상태와 흡사했다. 이런 묘지는 서민들의 묘지라고 했다. 왕이나 서민들의 묘지는 반드시 서쪽에 위치해 있었다. 그 이유는 저승을 횡단하는 태양이 밤마다 서쪽에서 여행을 시작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고대 이집트 문화를 연구한 사람들의 결론이, 이집트는 죽음의 문화라고 했다 한다. 그들은 사후 세계를 평안히 영위하기 위해서 살아있을 때 수년 동안 죽음을 준비했고 재생의 꿈속에 미이라를 만들고 영혼이 들어가 재생할 미이라를 잘 보존하기 위해 피라밋과 같은 큰 무덤을 만들었다. 왕무덤의 벽화도 다 죽음과 관계되어서 그려진 그림이다.

인

구 5천7백만 가운데 회교도가 90%이상이기 때문에 회교문화권으로 볼 수 있다. 콥티(Coptic : 이집트 기독교) 교인수는 백만 명으로 알려져 있다. 도시 곳곳에서 큰 회교당을 볼 수 있었다. 버스가 나일강을 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집트 안내인의 과장된 이야기를 곧이들어 피라미트 건설에 10만명의 노예가 동원되었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고고학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건설에 참여한 노동자는 4천명이었고 그들은 노예가 아니고 공공사업을 위해 징집된 자유시민이었다고 한다.

로질러갈 때는 감동이 컸다. 나일강으로 인해 4대 문명발상지 가운데 하나인 애굽문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강을 생명의 강이라고 불렀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의미의 감격보다 이 강이 성서에 여러 번 언급되고 애굽에서 460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인들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모세라는 이름은 애굽왕 바로의 딸이 지어주었는데 그 의미가 '물에서 건져내다'(출 2:10)이다. 이 물이 바로 나일강을 의미한다. 백만 km²에 걸친 건조하고 황량한 사막에 인간이 살 수 있는 장소란 나일이 적셔주는 가능하고 긴 데 모양의 농지뿐이다. 카이로에서 룩소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아래를 내려다 보았을 때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다.

나일강을 건너 피라미트 호텔에 가까이 왔을 때 거대한 피라미트가 눈앞에 전개되었다. 호텔방에 여장을 풀고 테라스에 나와 의자에 앉아 피라미트를 한동안 바라보았다. 책에서만 봐오던 것을 직접 목격하니 여행의 즐거움이 이런 데에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식 사후 호텔을 출발하여 이집트 기독교박물관으로 향했다. 기원전 332년 알렉산더가 이집트를 함락시킨 후 희랍인들과 유대인들이 이집트에 많이 거주했다. 기원전 280년경에 애굽 알렉산드리아(알렉산더 왕을 기념하여 세운 도시)에 있던 희랍어를 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진 구약성서를 희랍어로 번역하였다. 그 번역을 우리는 「70인역」이라고 한다. 신약성서를 기록한 기자들이 히브리어 성서보다 이 70인역을 많이 인용했다.

애굽교회 전승에 의하면 애굽에 기독교를 처음 전해준 자는 주후 40년경에 마가였다고 전해진다. 애굽이 기원전 30년부터 로마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초기 로마제국의 기독교 박해시 애굽기독교회(Coptic Church)에도 순교자가 많이 나왔다. 로마제국의 기독교 공인 후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는 기독교 신학의 중심지가 되었다. 주후 3세기에는 성경이 콜티어(Coptic : 희랍어에서 파생된 말로 이집트사람들이라는 의미)로 번역되었다.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기독교박물관에는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기록된 성서 사본과 기타 유물들이 많이 보존되어 있었다. 각종 조각 물들을 전시한 방이 있었는데 그 조각품의 내용을 볼 때 고대 이집트문화 바탕 위에 기독교문화가 접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 음날 룩소에서 하루 일정을 마치고 해질 무렵 예정에 없던 콜티교회를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었다.

이집트에서는 회교력에 따라 금요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교회도 금요일을 주일로 지켰다. 우리가 교회를 방문했을 때 마침 주일학교 예배가 드리지고 있었다. 예배에 함께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절차와 교회 내부를 자세히 볼 수 있었다. 여기에서도 기독교가 이집트화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바울이 선교활동 할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행 15:1) 주장하여 다툼이 생겼다. 바울이 이 문제를 예루살렘 총회에 회부하여 총회에서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한 일이 있었다.

복음을 받아드릴 때 유대인의 전통과 문화까지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기독교의 토착화를 연구하려면 콜티교회를 참고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우리 한국교회에는 이 콜티교회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앞으로 서로 교류하면 많은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기 독교 박물관 바로 옆에 예수님 피난교회가 있다. 이집트의 건축물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점은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옛 건축은 건축물을 부수지 않고 그것을 포용하여 더 큰 건물을 세운다는 점이다. 이런 양식은 로마에서도 많이 볼 수 있었다. 로마 바울교회당에 들어갔을 때 엄청난 규모에도 놀랐지만 옛 건물을 한쪽 날개에 포용하고 있다는데 감동을 받았다. 이집트 건축문화에서 흘러간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과거 문화 유적을 많이 파괴했던 우리로서 이런 양식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예수님 피난교회도 성 사르기우스(St. SARGIUS) 교회 지하에 옛날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애굽에 피난 오시게 된 배경은 마태복음 2장에 나온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뇨”하고 묻자 왕권에 위협을 느낀 헤롯은 아기 예수를 없애고자 했다. 한편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은 요셉은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갔다. 예수님은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거하였다(마태 2:15).

애굽과 이스라엘은 일찍부터 연관이 많았다. 성경에 애굽이라는 지명이 무수히 많이 등장한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보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가나안땅에 기근이 들어 아브람이 애굽에 내려갔다고 쓰여 있다. 예수님 피난교회 내부에는 예수님 가족이 피난했던 토굴과 12사도를 의미하는 12기둥과 10계명을 상징하는 10개 기둥, 설교단, 동정녀 마리아의 매장의식 초상화, 제단 위 둠에 그려진 예수님상, 오병이어 기적을 조각한 조각품 등이 있었다.

점심은 한식으로 먹었는데 식당 주인(한국인)의 말에 의하면 카이로에만 한국인이 수백명 살고 있다고 했다. 종업원이 이집트인이었는데 간단한 한국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했다. 며칠 한식을 먹지 않아서인지 우리 일행은 며칠 짚은 사람들처럼 먹었다.

식 사후 이집트 국립박물관에 갔다. 규모와 내용물이 풍부한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거대한 화강암을 가지고 나무에 조각하듯 자유자재로 다룬 고대 이집트인의 기술에 감탄할 뿐이었다. 미이라와 그것을 넣어 두었던 관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미이라는 죽은 사람의 내장을 빼낸 시체에 방부처리를 하고 건조시켜 만든다. 람세스 2세의 미이라는 3천년전의 것이지만 형태가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무덤에서 나온 부장품과 벽화, 각종 공예품, 비석 등 보물들의 가지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이런 귀중품들이 영국 프랑스 로마 등지에 많이 유출되었다. 대영박물관, 루브르박물관, 바티칸박물관 등에도 이집트에 있는 것 만큼 있으니 그 유물이 얼마나 많은가 짐작되리라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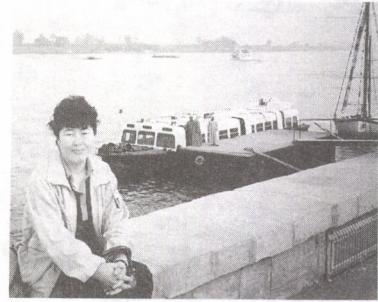
다

음 행선지인 세계최대의 석조건물인 쿠푸(컵스) 왕을 위하여 기제에 세워진 피라미에 도착하였다. 이집트에 산재한 80여개의 피라미 중에 쿠푸왕의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기원전 2600년경에 쿠푸(Khufu)왕은 왕위에 앉자마자 죽음 준비의 하나로 자기의 무덤이 될 대 피라미를 계획하여 23년 통치기간 내에 완성하였다.

탑의 규모는 면적이 520아르(15,730평), 높이는 145m나 된다. 현대의 전문가들의 측정에 의하면 피라미에 사용되어진 화강암은 기재에서 500마일 이상 떨어진 아스완에서 채석하여 나일강으로 운송해 왔다. 단단한 화강암을 채석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도구로는 자를 수 없어 체석장 벽면에 도랑을 만들어 도랑에 나무쐐기를 박고 거기에 물을 부어 쐐기가 팽창하는 힘에 의해 바위를 쪼갰다고 한다. 석재에는 갖가지 표시가 있었다. 사용할 예정장소를 나타낸 것도 있었고 석재의 높이를 나타낸 표시도 있었다. 이것은 설계에 의해서 작업을 했다는 증거이다. 피라미 바닥을 수평으로 잡기 위해 그 둘레에 수로를 부설하여 수면을 표준삼아 쌓아 나갔기 때문에 현대의 측정결과로도 그 넓은 바닥의 양쪽 편차가 1cm 정도밖에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대 이집트인의 지혜와 건축술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아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집트 안내인의 과장된 이야기를 곧이들어 피라미 건설에 10만 명의 노예가 동원되었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고고학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건설에 참여한 노동자는 4천명이었고 그들은 노예가 아니고 공공사업을 위해 징집된 자유시민이었다고 한다. 일은 무척 힘들었으나 왕을 위해 일한다는 데에 보람을 느껴 어느 노무장은 “누구 한 사람 지치는 일도, 목이 마르는 일도 없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 피라미는 그 거대한 외관만으로도 세계의 7대 불가사의의 하나가 된다. 그러나 내부 구조도 외관 못지 않다. 좁은 복도, 통로 큰 복도, 왕실(묘실) 등으로 구성된 내부도 돌의 엄청난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공학기술의 숨씨를 과시했다. 예를 들면 큰 복도는 몇 겹씩이나 베텀돌을 사용한 천정이 만들어지고, 왕실 위의 돌무게를 막기 위해 여섯겹의 지붕이 만들어졌다. 왕실은



‘물에서 건져내다’는 뜻의 이름 모세. 이 물이 나일강을 의미한다.

좁은 복도와 큰 복도를 지나서 있는데 고도가 높기 때문에 오르기가 쉽지만은 않았다. 직사각형의 큰 화강암의 짜임새가 빈틈이 없음을 보고 건축에 문외한인 자로서 감탄할 뿐이었다. 왕실의 내부는 큰 방과 같이 생긴 공간에 한쪽 구석에 미이라를 넣어 두었던 돌관만 남아 있어 싱거웠다. 내용물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들었다.

미이라를 만든 것은 이집트인의 신앙에서 연유된다. 그들은 사후에 형태 없는 영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살아간다고 생각했다. 죽음과 함께 영혼은 육체를 떠나지만 그것은 또 다시 육체에 되돌아와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런 신앙 때문에 자연히 무덤도 미이라가 확실히 보관되도록 고안되었던 것이다.

파라미트을 보다 더 잘 보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사막으로 2km정도 달렸다. 우리가 탄 버스 뒤로 낙타를 탄 사람들이 새까맣게 몰려왔다. 그들은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낙타를 한 번 태워주고 사진을 같이 찍는데 1달리였다. 너무 극성스럽게 요구해와 그 중 나이어린 소년을 택해서 그가 끌고 온 낙타를 탔다. 질 나쁜 사람은 자기와 억지로 사진찍자고 해놓고 모텔로를 내라고 요구하기도 하여 뒤맛이 씹쓸했다. 버스를 타고 되돌아오는데 버스의 위치에 따라 쿠푸왕 옆에 위치한 파라미트 두 개가 여러 형태를 연출해 주었다. 파라미트이 하나로, 둘로, 셋으로 보였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파라미트을 세울 때 기하학적으로 배열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볼 수 있다.

우 리 일행은 파라미트 부근에 있는 스팽크스로 향했다. 우리가 갔을 때 얼굴 부분을 보수하고 있었다. 이것도 많은 논란을 거쳐서 보수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이 거대한 상은 사자의 몸과 인간의 머리를 가졌다. 크기는 길이 약 73m 높이 약 20m 머리폭이 4m 이상이나 된다. 스팽크스라는 이름은 그리이스인이 이집트에 왔을 때 석회암의 이상한 형태의 동물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리이스 신화에 나오는 괴수(사자의 몸에 여자의 가슴과 머리를 한, 날개 가진 짐승)의 이름인 스팽크스를 그의 이름으로 붙여 주었다.

이 스팽크스는 기독교 고고학자에게는 큰 의미를 부여 해주는 일화가 있다. 투트모세 4세(Thutmost IV)의 기념비 문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투트모세 4세가 젊은 왕자였을 때 피라미트 가까이에 사냥 나가 있는 도중 스팽크스의 그늘에서 쉬게 되었다. 그만 깜박 잠이 들었는데 스팽크스가 그에게 말했다. 만일 내 둘레에 높이 쌓인 모래를 제거해 주면 이집트 왕위를 주겠다고 왕자는 모래를 제거해 주었고 약속대로 이집트 왕이 되었다. 투트모세 4세에게는 나이가 훨씬 많은 형이 있었으므로 왕이 될 것을 예상치 못했는데 형이 갑자기 죽으므로 왕이 된 것이다. 이 사실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열째 재앙에 애굽왕의 왕자가 죽었음을 의미한다. 투트모세 4세의 시기가 모세의 출애굽 연대와 비슷하기 때문에 믿을 만한 것이다.

이집트 역사에는 성경에 나타난 출애굽의 역사를 뒷받침 해줄 만한 자료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이다. 모세라는 이름 조차 아직 찾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집트의 자존심이 히브리 민족에게 어려움 당한 것을 후손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기록에 남기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는 해석이다. 이런 의미에서 스팽크스 앞에 세워진 투트모세 4세의 즉위 사실을 밝힌 비문은 귀중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이집트에서 첫날 일정을 모두 마치고 호텔로 돌 아가는 도중 파피루스 가게에 들려 고대 이집트인이 만들어 사용했던 파피루스 종이 제작과정을 살펴보았다.

파피루스는 이집트 삼각지 습지에서 자라는 수생식물로 그 풀이 다 크면 수수대처럼 되는데 그것을 베어 일정한 길이로 잘라서 바깥 껍질을 벗기고 연한 골(木髓)을 꺼내어 엷은 조각으로 찢어낸다. 테이프처럼 생긴 조각을 가로세로 잇대어 놓고 누르면 단단히 밀착되어 견고한 종이가 된다. 성서를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책이라는 의미이고 이 말의 어원이 파피루스에서 연유되었다. 파피루스가 옛날 사람들의 책 재료가 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다음날 룩소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새벽 4시에 기상해야 함으로 저녁식사 후 일찍 잠을 청했다. ■■■

영락교회의 선진화

권정순

(집사·동방아동복지회 동방학교 교장)

바로

지난 주일날이었다. 3부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본당 출입구 앞 긴 대열에 서서 2부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많은 성도들이 거의 다 나을 무렵,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목격하게 되었다. 머리가 허끗 허끗한 50대의 아들이 70대의 거동이 몹시 불편한 아버님을 온 힘과 정성을 다해 모시고 가파른 본당 북쪽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노약자인 노인은 보행에 불편을 가진 분이었다. 아들이 두 팔로 조심스럽게 어른을 모시고 한 계단 한 계단씩 내려가는데 한쪽 팔을 잡아 드리고 싶었지만 두 분이 다 남자 분이어서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다. 1분이면 족한 시간을 아마 7, 8분은 걸렸으리라.

아들의 효성과 70대 성도님의 신앙심은 짐작이 가고도 남았다. 아마 은퇴장로님임에 틀림없으리라. 생각하면 지난 십수년 동안 이 교회 수십 계단을 오르내리며 교회를 위해 아마도 많은

봉사를 하셨으리라. 그런데 지금은 당신 혼자 힘으로 교회를 못 오셔서 아들의 도움을 받아야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되니 본인인들 얼마나 안타까울까?

교회 사방을 둘러보아도 가파른 계단뿐, 훨체어 한 대 들어앉을 곳 없는 우리 교회. 노약자를 모신 자동차가 교회 앞마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가파른 비탈길 아래에서 하차하여 손녀·자부의 양팔 도움을 받아 교회 앞마당에 올라서면 둘러보아도 까마득히 높은 계단들. 성한 사람이 올라가도 숨이 차는데 노부모를 업고 또는 양팔을 부축하며 올라가기란 장정인들 어디 쉬운 일인가?

우리나라도 이제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인간의 수명도 해마다 늘어만 간다고 하지 않는가. 과연 앞으로 십수년 후나 혼자서 저 높은 교회 계단을 오를 수 있을까? 다리에 힘이 없고 혹 병이라도 앓는다면 교회는 못 나올 것이 아닌가? 그럼 십수년 동안 정든 교회를 두고 훨체어가 드나들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많은 은퇴장로·집사·권사들이 지금 교회문 앞까지 자동차로 온다 해도 어느 장소에 훨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가? 본당지하 입구에 유일한 램프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지만 무거운 긴의자들로 빈틈 없이 꽉 메워진 공간 공간들!

오늘도 백만대의 차량들이 질주하는 서울 거리 어디 한 순간인들, '나만은'하고 안심할 수 있는가?

혹 이런 성도의 가정은 없을런지? "애, 어멈아. 나 교회 좀 데려가줘." "어머님, 교회 계단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가셔요. 집에서 편히 라디오로 지난주 목사님 설교나 들으셔요. 저희들 다녀오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소외





당하는 우리들의 노부모님들. 어디 그뿐이라, 성장 과정에서 각종 질병과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우리의 장애자들. 앞못보는 이들을 위한 요철브릭 한 군데 없는 교회 앞마당.

항상 교회 앞마당은 차량으로 가득한데, 정말로 교회 앞마당에 주차해야 할 차량은 노약자, 장애자를 태운 차가 아닐까? 언제나 휠체어를 타고 원형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본당 앞자리에 백발이 성성한 우리들의 노부모님들을 앞에 모시고 예배를 드릴 날이 올 것인가?

늙기도 서러운데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못 오는 각 가정의 장애자 아닌 장애인들, 그리고 각종 병약자들. 우리는 지금 젊고 건강하다고 이들을 외면하고만 있어야 하는가?

지난 장애자올림픽 때 “장애인들이야 말로 이 시대 이 사회의 죄와 별을 대신 지고 가는 그리스도의 협조자들”이라고 누가 말하지 않았던가? 노인 인구를 제외하더라도 인구 100명 중 7,8명의 장애자가 출현된다는 통계에 의하면 그 중에 내가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축복 받은 인생들이 아닌가! 하나님께 감사의 뜻으로 우리 모두 행복세를 내야 하리라.

1981년 유엔의 세계 장애자의 해를 출발점으로, 1988년 세계 장애자 올림픽 대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까지 장애자 복지 대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해마다 늘어만 가는 장애인들의 수용시설은 부족하기만 하다. 특수학교에 입학 하기가 대학 들어가기 만큼 어려운 현실! 가정에서 양육을 할 수 없어 자식을 버려야 하는 장애자 부모! 한 사람의 장애아로 인해 온 가족이 평생 불행을 안고 살아야 하는 안타까움. 이런 장애아들을 위한 수용 시설 하나쯤 우리 영락인들이 만들 수는 없는 것일까?

우리 서로가 내 앞길만을 가느라 옆을 돌아 볼 겨를이 없는 것은 아닐까? 노약자나 장애를 가진 자나, 모두 우리와 함께 사는 이웃들이기에 우리 정상인들과 똑같이 생활을 영위하여야 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강한 우리들을 대신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그들을 돋고 살아야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아닌가?

이제 4월이면 장애자의 날, 5월이면 어버이날. 우리의 영락 청소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휠체어를 밀어드리는 봉사야말로 경로·효친사상을 바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딘가 치우쳐만 가는 우리 사회, 쌀이 남아 돌아간다는 우리사회. 우리는 언제까지 입으로만 사랑을 외칠 것인가? 먼 지구 저편, 아프리카 난민 구호사업, 물론 해야 한다. 그러나 먼저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고 우리의 병약한 형제들을 위해 우리 교회도 이제는 선진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오늘날 이 사회의 병폐인 지역감정 이상으로 장애자에 대한 우리의 지나친 편견. 불과 몇년 앞을 내다보면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닌 바로 나의 일이건만 우리는 왜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잘 알고 지내는 어느 집사님이 평생에 한 번뿐인 회갑잔치를 화려한 호텔 부페장이 아닌 장애자 수용시설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했다. 참으로 훌륭한 집사님이 아닌가?

우리 교회에도 선진화의 물결이 일어 병약자와 장애자를 위한 엘리베이터가 오르내리고 약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모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으랴. 장애자에 대한 그릇된 편견에서 벗어난 의식의 선진화, 복지 시설의 선진화가 우리 교회에도 꼭 올 것을 기대해 본다. ■

더 불어 사는 삶

매 일 공기를 호흡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처럼 신체 모두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건강함에 감사를 모르고 사는 일이 허다하다. 병도 아파봐야 그 고통을 아는 것처럼 신체 어느 한 부분이 원활하지 못할 때 새삼 심신장애인의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장애자에 대해 무관심해 왔다. 길 가다가도 맹인을 보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며 놓아들이 수화하는 모습을 신기한 동물구경하듯 바라보았던 때도 있었을 게다.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그들을 도외시했던 지난날들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얼마전 TV에서 「인간승리」를 방영했다. 중학교 미술교사였던 분이 교통사고로 맹인이 되었는데 자신이 맹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몸부림 후에 어쩔수없이 맹인임을 자인하고 극복하고 또 봉사하는 삶의 일면을 보여주는 내용이었다. 다행히 맹인용 개를 무료로 선물받아 이 개가 눈을 대신해 주며 온 가족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화목하게 사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재가장애인(복지시설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집에서 방치 내지는 숨겨진 장애자)을 포함하여 소외된 장애자들은 무수히 많을 것이다.



'88년 장애자 올림픽 때 일본측의 맹인들은 길들인 맹인용 개를 한 마리씩 데리고 입장했다. 그 개는 한 마리당 무려 삼천만원을 훗가하는데 물론 각자 지급받은 자신의 개였다. 외국의 신체장애인의 경우에도 복지시설이 잘되어 있어 그들의 얼굴표정에서도 당당함을 느낄 수 있었다. 경기가 끝나면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했다고 환한 웃음과 함께 악수하며 고마와했다. 그러나 우리네 장애자들의 모습은 그들보다 다소 우울하고 나약해 보였음은 지나친 편견 때문이었을까?

영락교회는 장애자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장애자교회인 부활교회에 대지를 사준 것 외에도 개인수술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수고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 성북교구 어느 집사의 경우, 맹인선교를 위해 도봉구 20여 가구 맹인들에게 일년이 넘도록 설교테이프를 기증했다. 그러나 이들이 본교회 예배에 참석하려면 동원수단이 필요했다. 개인의 도움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 때의 도움의 손길이 지금까지 이어지지 못한 자책과 이쉬움을 남겼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아 남모르게 정상인들의 틈바구니에서 갈등에 부딪치며 살아간다. 그들은 의외로 많은 숫자이며 또 늘어만 간다. 정신과의사들이 본교회에서 주일마다 정신질환자와 상담하며 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으나 근본적 치료는 어렵다. 문제는 본인들이 노출을 꺼리며 가족들도 오래 동안 시달려 왔고 또 수준 높은 의학상식을 갖고 있어 정신질환 강의도 별도움이 안 된다.

우리교회에는 10명 정도의 장애자가 등록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질환자의 숫자까지 포함하면 내면적으로는 많다고 보아야겠다. 이제라도 좀 늦은 감이 있으나 우리 교회에서도 도와 주고 있는 입장은 떠나 실제적으로 장애자를 위한 복지계획을 세워야 할 때라고 본다. 장애자를 위한 예배, 그들이 출입할 수 있는 시설, 전문가와 목회자가 함께

하는,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장애인들도 분명히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다. 장애를 가진 잃은 양들은 신체에 장애가 없는 잃은 양보다 더욱 삶이 고달프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품에 안은 이들 속에 장애인들이 우선적

으로 포함되어 있었음을 성경에서 쉽게 발견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는 장애인을 쉽게 발견할 수 없음을 어찌된 일일까? 예수님께서 장애인에게마다 구원을 베푸셨던 그 사랑의 심장을 오늘날 교회들이 시급히 이식받아야 할 것이다.

황순복 기자



장애인 선교와 직업재활의 집, “에덴하우스”

목 이 불편한 장애자 60여 명이 모여 재활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장애자 직업재활원 에덴하우스(서울 구로구 개봉1동 50-8 ☎ 681-2195, 613-0967).

장애인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 나가기 위해 중증장애인 정덕환 씨가 4명의 장애자와 함께 '83년 구로구 독산3동에 방 한칸을 세내어 자립의 길을 모색해 본 것이 오늘의 에덴하우스의 시초이다. 소형 모니터 조립 하청을 시작으로 주로 전자제품 조립을 해온 에덴하우스는 숱한 난관을 넘어 '87년 현 위치로 이전하였고 200평의 대지에 70평의 작업장, 12개의 단층 슬레이트 방을 기숙사로 갖춘 중소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작년에는, 그 동안 해오던 전자제품 조립이 계속되는 불황을 맞자 이의 타개책으로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에 100t 규모의 쓰레기 분류 수거용 비닐봉지 공장인 에덴복지공장을 차렸다.

요즘 에덴하우스 식구들이 하고 있는 일은, 수출용 신발을 만드는 것. 어느 독지가의 배려로 신발 만드는 기술을 익히고 있다.

에덴하우스의 구성원들, 장애자들은 이곳에서 기숙사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배워가고 있다. 직업재활을 통한 의욕과 생기, 그리고 영적 재활을 통한 거듭남이 기쁨과 소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최일현 씨. 시장에서 수세미 장사를 하다가 이곳에 온 휠체어를 탄 형제이다. 그는 저자거리에서 만난 사람의 안내로 1년전 이곳에 왔다. “우선 수세미 장사 때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이들이 받는 월급은 대략 13만원~6만원. 장애의 정도에 따른 노동량에 비례한다. 지극히 적은 액수이지만 이들은 한달 노동의 댓가를 받으면 그 소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

그러나 요즘, 정덕환 원장은 쓰레기수거용 비닐봉지 홀로에 부심하고 있다. 시청과 각 구청에 쓰레기봉지를 납품하는 문제가 여의치 않은 것. 어렵게 이루어가는 자립에의 길은 정녕 험난하기 만하다.

작년 가을, 본교회의 제2남선교회에서는 에덴하우스 식구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위해 화장실을 개조해 주었다. 또한 구로교구 구역원들이 따뜻한 온정의 마음을 주고 있고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중소기업으로 성장한 에덴하우스가 장애인을 위한 모범적인 근로시설로 견고하게 서기 위해 시급히 필요한 일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이의 설립 추진과 복지공장의 안정, 그리고 에덴복지공장을 세우면서 벌은 채무의 변제를 당면과제로 앓고 있는 에덴하우스.

원장 정덕환 씨는 이렇게 그의 소망을 말했다. “언제까지 이 에덴하우스와 같은 장애자 직업재활원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장애자는 장애자끼리만 모여서 살고, 열심히 일만 하면 에덴과 같은 낙원이 건설되는 것일까, 답은 그 반대일 것입니다. 장애자도 정상인들과 같이 일하고 먹고 즐거움을 같이할 수 있는 사회, 그래서 에덴하우스가 필요 없는 사회,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

김미선 기자

영혼의 안식처요

새로운 삶의로의 준비처

— 지체장애인 기술교육원 사랑의 집 —

제법 따사로운 기운이 겨우내 죽어있던 모든 것들에게서 생명으로의 움음을 보고싶게 한다.

이때, 늘 사랑 안에서 하나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랑의 집'에의 탐방과 그곳에서의 나눔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다.



하체장애 때문에 불우하게 보내야만 했던 시절의 아픔이 있었기에 자신과 같은 장애로 사회와 가정에서 버림받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헌신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고 신동욱 원장(1988년 작고).

그는 장애자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길은 '기술을 배우는 것'이라고 확신하며 가족들 몰래 기술학원을 다녔다. 그곳에서 익힌 도장·시계·금은보석감정. 이것을 생명 없이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전하여 주리라, 그리하여 거리에서 걸인과 같이 방황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보는대로 하나 둘 자신의 거처로 불러들였다. 함께 먹고 자며 그들이 자립하여 사회에 나가 한 인간으로 바로 설 때까지 완전히 기술을 전수해 주며.

이렇게 시작하여 30년이 지나 현재 총 629명의 수료생을 배출했고 38명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랑의 집'으로까지 이르게 하였다.

한 인간을 통하여 엄청난 장애인들을 빛으로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단지 도구로 쓰임받았던 고 신동욱 원장.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자신이 좋아서 봉사하는 것인데 남한테 도움의 손을 벌리는 것은 말도 안되며 그러할 경우 원생들에게 자립심도 길러 줄 수 없다고 고집스럽게까지 생각하였다. 그래서 자신이 시계방을 운영하고 학교나 단체 등에 나가 간증하고 행상하고 봉고차로 영업하며 그곳에서 얻은 수익금만을 가지고 운영해 나갔다.

기술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 팔므로 운영에 도움을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할 경우에는 배우는 곳이라는 순수한 목적성을 회석시킬 수 있다고, 한사코 못하게 하였다. 어렵지만 밥 한 그릇이라도 우리끼리 나누어 먹자며.

그러했기에 받는 경제적 난관으로 피눈물도 많이 흘렸으나 그 때마다 굶지 않을 정도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기도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다. 이는 그의 모든 마음과 사랑을 사랑의 집에 심었기에 가능했으리라. 그러함에 원생들에게 졸업할 때까지 모든 것을 무료로 제공하며 사심과 욕심없이 오직 봉사정신으로만 임할 수 있었으리라.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고 신동욱 원장이 혼자고 가기에는 너무도 무거운 십자가였다. 고된 일과와 많은 신경쓰임으로 갑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54세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더 연약한 박영해 사모에게 맡기셨다. 그는 정상인이지만, 장애인이면서도 장애자를 위해 살았던 남편을 곁에서 도우며 같이 일해 왔다. 그러나 막상 혼자 맡게 되고 보니 그 십자가를 피하고도 싶었다. 값진 봉사이지만 기쁨만으로 할 수 없고 괴로움과 고통이 따라야 힘을 알고 있었기에. 하지만 이것이 자신의 운명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하여 충

십자가

손 혜련

성을 다하고자 했다.

깊은 신양적 체험도, 깊은 신학적 연구도 않은 단지 한 여자가 그 엄청난 짐을 짊어지리라는 결단을 했음을 보며 요즈음의 이 땅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주의 종들이 지고자 하는 가벼운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혼자 감당키 어려웠기에 하나님께서 그 곳에서 기술을 익혀 자립해 나갔던 전재훈 선생을 불러 주셨다. 전재훈 선생은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며 후배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고 있다.

하체장애로 세상에서 이것저것을 해보다 실패한 후 장래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을 때, 기독교방송국을 통해 고 신동욱 원장의 인터뷰방송을 듣고 88년에 이곳에 들어와 기능을 익히고 있는 이완범 형제는 “이젠 소망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 활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배우고 있다”고 힘있게 말했다. 또한 사랑이 있고 희망이 있기에, 여기에 오면 누구나 외롭지 않기에, 자신과 같은 장애인에게 이곳을 권한다는 이덕병 형제는 얼굴 가득 웃음이다.

‘사랑의 집’ 안내지를 펼쳐보니 교육과목이라고 쓰여져 있는 곳에 시계수리기술 금은보석 감정기술 인장기술 그리고 교양강좌 성경공부 찬송공부도 적혀 있었다. 그리고 입소자격에도 18세 이상의 기술을 익히는데 어려움이 없을지 체장애자와 기독교인, 입소하면 예수를 믿기로 작성한 자라고 쓰여져 있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기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 경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오전 9:00~오후 5:00까지의 교육 일정이 끝난 후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주일에는 모두 신내동교회에 가 예배드리며 기술을 익히고 있는 ‘사랑의 집’은 장애자들의 영혼의 안식처로 새로운 삶의로의 준비처였다.

“…성실과 자립 속에 창의를 개발하여 사회의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간다. 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된 우리 …” 이 혜경 기자

오늘밤에 오늘밤에

주께서 십자가에 못박힌 때에
나는 무엇을 하였나요
로마군병이 무서워서 도망하였을까요
그 채찍질이 무서워서 피하였을까요

오늘밤에 오늘밤에

주께서 돌아가실 때
나는 무엇을 하였나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무서워했나요
운명하신 주님을 보았을 때
저는 무엇을 했나요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때

난 난 무엇을 하였을까요
주님께서 로마군병에게 그 가죽의 채찍질을
맞으면서 걸어가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난 난 무엇을 하였을까요
고난을 무서워하고 있나요

오늘밤에 오늘밤에

주님께서 십자를 지고 가실 때
난 난 무엇을 했나요
골고다의 언덕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난 난 기도를 했나요
큰 핍박과 환난을 이겼나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죽여 주옵소서

오늘밤에 오늘밤에

주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저는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제 할 말은 다만 용서하소서
오직 이 말을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

손혜련/1957년 서울에서 태어
나 본교회에 출석하는 지체장애
자로, 영락성경학원 전도요원
교사양성부를 거쳐 지금은 영락
농아인교회의 영통회 회원이다.

—칠레편—

복음의 진지 구축케 하신 하나님

발 파라이소와 비냐델말 전체가 내것이 된 양 기쁨이 가득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선교센터 건물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는 전 주인의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아 45년을 간직해 오던 집이었기에 섭섭함과 아쉬움의 눈물일 것입니다. 그러나 새 주인으로 서명하는 내 눈물은 주님의 기도응답에 대한 감격의 눈물입니다. 성실하신 주님은 4개월 만에 저희가 애타게 부르짖던 기도에 응답해 주시사 드디어 선교센터건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칠레에 파송된 지 1년이 되던 89년 12월, 아직도 신통찮은 언어의 장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고 싶은 강렬한 소망으로 원주민 10개 개척교회의 센터가 되는 이구아 산타 교회를 세를 얻어 참으로 용기있게 시작했습니다. 첫 예배에는 우리식구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개구장이 막내 성진이가 헌금위원을 했고, 설교를 스페인어로 했는데, 원주민 없는 스페인어 설교의 어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교회는 처음에 믿음으로 구입한 50개의 의자가 모자라도록 채워졌습니다. 얼마전에는 처음으로 3명에게 세례를 베풀고 1명이 입교를 하여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7월초 카톨릭 신자인 집주인이 갑자기 찾아와서 교회를 해서 수입이 좋을 것 같으니 두 배로 올려 주든지 나가든지 하라는 최후의 통첩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시기하는 사탄의 영이 역사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우리들에게는 마치도 이제는 너희교회를 가질 때가 되었다는 소리로 들렸고, 그래서 온 성도들과 함께 40일 특별 새벽기도와 철야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특별기도제목을 작성하여 여러 칠레 선교 기

허 원 구 선교사

도 동역자들에게 발송하기 전, 철야기도에 참석한 성도들과 함께 모두 편지의 한 모퉁이씩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도록 뜨거운 기도를 밤새 드린 후 그 편지를 발송했습니다. 이 상황은 한국에서 교회개척을 할 때 당한 경우와 너무도 흡사했습니다. 그때도 추운 겨울에 집주인으로부터 교회를 비워줄 것을 요구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힘쓰던 가운데 40일 만에 새 성전을 구입하여 이사한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와 같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선교센타는 복음 전파의 요람이다. 시내중심기에 위치한 이 선교센타는 영락교회가 지원하여 구입한 건물정면이다.

이렇게 시작한 40일 특별기도가 끝난 직후 저희를 파송한 영락교회 선교부 시찰단이 도착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남미 전지역을 돌아보아야 할 시찰단이 공교롭게도 칠레 입국 비자밖에는 받지 못하여 원래 계일 마지막 코스로 잡혀 있었던 칠레에 직접 도착한 것입니다. 발파라이소에 머무는 3일 동안에 우리의 상황을 보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던 건물을 둘러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칠레를 떠났습니다. 12명의 영락교회 지원 선교사 중에 제일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본 선교사에게 7만불이라는 거액의 선교비를 지원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으나 주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고 매일 점찍어 둔 집을 여호수아처럼 기도하며 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발파라이소의 가난한 산동네의 조그마한 교회인 비론교회에서 집회를 인도 하던 중에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간절하게 기도해 주었고 그 자리에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털어서 건축현금을 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나온 돈이 1969페소, 10달러가 채 안되는 적은 액수의 돈이었으나 그 때 모인 자들의 형편으로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비닐봉지에 든 1969페소의 사랑의 현금을 받아든 내 손은 떨렸고 액수는 적었으나 이 돈 속에 있는 믿음과 사랑은 7만불이 넘는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후 며칠 뒤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왔습니다. 영락교회가 7만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선교비의 도착을 기다리면서 계속 그 집을 돌며 기도하던 어느날 아침, 기가막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집이 어제 팔렸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괴로움과 막연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때부터 집을 도는 일 대신 발파라이소와 비나 델 말의 모든 건물을 순회하는 복부인과 같은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모두 100여 집 이상을 본 것 같습니다. 7만불로 살 수 있는 집은 참으로 드물었습니다. 거의 두 달을 돌아다니다 보니 집을 보는 저의 감각은 거의 전문가의 그것을 능가하게 되었습니다. 척 보기만 해도 평수와 가격 등을 신출해 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두 달 동안의 노력은 9만불 이상가는 주택기에 파묻힌 한 건물을 발견한 것 외에는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했습니다. 기진맥진하였을 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비나 중심가에서 가까운 알바레스가에 건물이 하나 나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서 보니 그 건물은 전에 놓친 건물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는데 시내 중심에서 2,3분 거리이고 대지는 약 200평방 미터가 더 넓었고, 건물도 더 크며 대로에 접하고 있어 어디서나 잘 보이는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보는 순간, 이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알아보아야 했습니다. 그 주간 금요 철야기도회에서 특별히 그 건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물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시도하는 도중에 새로운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9만불에 그 건물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우리와는 계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때의 절망감은 처음 기도하던 집이 팔렸을 때 보다 더 했습니다. 그 중에 주님은 시

편을 통하여 하나님이 땅의 주인임을 말씀하시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집을 찾을 의욕도 없어버린 채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있던 중 그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다음달에 계약하겠다고 함으로 바로 살 수 있는 우리에게 팔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은 바로 이루어 졌습니다. 그날밤 우리들은 감격에 겨워 밤이 늦도록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이 주신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칠레 발파라이소에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워나갈 견고한 복음의 진지가 구축되었습니다. 수년내에 이곳에서 훈련받은 칠레형제가 이 교회의 힘으로 다른 나라에 선교사로 재파송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선교센터 구입은 단순한 건물구입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도 큽니다.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하는 것이며, 모두 닫힌 문은 기도로 열 수 있다는 것과, 모든 선교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가운데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사실과, 선교는 혼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와 원주민과 후원자가 함께 기도와 물질과 힘을 합쳐 이루어가는 공동작업임을 실감하였습니다.

이 귀한 일을 위해서 무릎으로 기도해 주셨으며 귀한 선교비를 넘치게 보내주신 영락교회당회와 해외선교부, 여전도회지회, 목사님, 장로님, 여러 성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파송된 선교사가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보살피며 돌보시는 후원을 힘입어 더욱 열심히 이곳 칠레에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주님이 보내신 땅 끝인 이곳 칠레에서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이곳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칠레땅에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또한 이 선교센터를 통하여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가장 적당한 때와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소식

해외선교부

2월중 선교보고서 보내주신 분
주칠레 선교사 허원구 목사, 주파라과이 선교사 김춘근 목사, 주필리핀 선교사 류동원 목사, 주미국 이수훈 선교사, 주인도 김영자 선교사, 주네팔 선교사 이성호 목사

2월중 선교통신 또는 선교자료 보내주신 분과 기관

ACTI 김동찬 목사, Dr. Titus Loong 재인도 현지인 전도사 R.R. Lolly 목사, 재리비아 박종석 성도, Single Mission 이성의 목사, 중국 길림성 박송봉 장로

출국

주브라질 선교사 목만수 목사, 휴식기간 마치고 가족과 함께 3월 1일 출국

수단 유학생에게 장학금 전달

제2여전도회(회장: 최재영권사)는 선교사업의 일환으로 수단에서 유학

온 Raafat Rabib Zaki에게 대학원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전달하였다. Zaki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였는데, 신학을 공부한 후 본국에 돌아가서 신학교육사업을 할 예정이다.

“마을이 형성된 곳마다 탁아소를 설치하고 싶습니다”/인도 김영자 선교사

1983년도에 구입한 캉가얌에 있는 대지 위에 교회와 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여러 문제들은 잘 해결되어 우선 벽을 쌓는 일부터 시작하고 있다. 어린이 선교를 위하여 고아와 가난한 집의 자녀들을 남녀학생 40~50명 정도로 모으고 있으며, 시골 마을에 탁아소를 설치하여 숫자와 날자에 제한을 받지 않고 마을이 형성된 곳마다 그리고 현지 동역자가 모여질 때까지 운영하려고 한다.

크리시나기리에 새로운 마을이 형성되었는데, 특히 주된 구성원들이 젊은 부부들이기 때문에 가정문제상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상담 선전문을 집집마다 돌리기도 하였다. 문맹퇴치의 일환으로 야간학교를 3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의 강단꽃꽂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여 화려한 색을 피하고 마음의 근신을 표현하여야 한다.

주로 회색계통의 꽃과 백합, 가시나무 등으로 고난과 부활을 표현하게 된다.

소재/설유화 은엽아카시아 베킨바카아 카네이션 후리지아 목련 뉴카리나 장미 스프링 케제리 스페리아 백합 아리스 산동백 산당화 오동추리아 용기/콤포트

꽃꽂이 형/직립형

(서무부 실행위원 김순배 집사 제공)

3, 4월의
강단 꽃꽂이

지난 겨울내 얼어 붙었던 모든 자연이 따사롭고 부드러운 봄바람으로 녹아 내리고 새싹이 움트기 시작하는 계절이다. 특히 3, 4월은 죄악으로 얼어 붙었던 우리 인간들의 영혼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 얻게 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순절과 부활절이 있는 계절이다. 따라서 3, 4월

기도제목

- ①현지동역자와 단기 선교사의 헌신을 위해(특히 의학과 음악 계통의 단기 선교사를 환영함)
- ②새로 만나게 될 어린이들의 영육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 ③달마뿌리의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하여
- ④달마뿌리에 선교센타를 건립할 적절한 대지의 구입을 위하여
- ⑤사역자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소그룹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미국 이수훈 선교사

구역예배를 통한 소그룹활동이 매우 중요하므로 구역성경공부를 강화하여 실시중이다. 이 그룹활동은 신자 육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불신자 전도에도 좋은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한국인이 이곳에 염색공장을 설립하여 곧 가동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약 30여 명의 교포가 오게 된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전도와 기도가 요청된다.

“심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네팔 이성호 선교사

심한 박해와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 때문에 본부를 방콕으로 옮겼다. 이 선교사는 가족을 방콕에 두고 혼자 드나들며 가서 일하는 형편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교인 2명은 1년, 집사 2명은 6년, 장로 1명은 6년, 농촌교회목사 7년, 고아원 원장은 6년 징역으로 현재 투옥중이며 노골적인 박해가 점점 심해져 가고 있다.

네팔에서는 지하 조직으로 교회를 개척하였다. 집을 세내어 신학교육을 하고 있으며, 대학생 선교를 위하여 CCC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의료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



100만원을 보조하였다.

제1남선교회 (회장 김영하장로)에서는 지난 2월에 경기도 양평에 소재한 화양교회(정하성목사)의 자립예배를 드렸다.

국내전도부

3.1절 기념예배

국내전도부(부장 최찬훈 장로)에서는 지난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 동안 본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개척교회 및 기관, 병원, 군 교역자들을 초청하여 백주년기념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런 행사를 통하여 본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교역자들에게 목회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목적으로 본 교회의 선교정책 소개 및 참석한 교역자 상호간에 목회정보들을 교환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국내전도부에서는 지난 2월에 중구 회현동에 소재한 한국맹인연합교회 (장찬호목사)의 헌당식을 가졌다. 이 맹인연합교회는 그 동안 본 교회가 맹인선교에 계속적인 관심과 기도로 지원해온 결과로 맺어진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25평에 총공사비 6억 7천만 원중 본 교회가 3억원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국내전도부에서는 총회 전도부에 “교회와 선교”지 발간을 위한 문서 선교비로 10만원을 지원하였고 지난 2월에 경남 안동에 소재한 도진 교회에 강대상 및 오르간 구입비로

사무실이전

그동안 봉사관 3층에 있던 해외선교부 사무실이 협소한 공간 때문에 2층 구 심방부 자리로 이전하였다. 국내전도부도 같은 사무실이다.



청년부

청년연합영성훈련 실시

신앙과 삶의 조화를 위해 마련된 영성훈련이 2월28일(수) 오후 8시~3월1일(목) 오후 5시까지 영락기도원에서 “삶과 그리스도의 청년 공동체”라는 주제하에 실시되었다.

다양한 프로그램 안에는 인간관계 훈련, 친양의 시간, 주제강의 등이 있

었으며 특히 부서를 막론하고 조를 편성하여 친교와 함께 Q, T를 나누며 서로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 나눔을 자기의 경험세계로 갖게 되었다.

주제 I 강의를 한 임영수 목사의 말씀 중 어느 댄서의 이야기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남에게 보여지고 인정받기 위해 좀 더 좋은 옷과 외적인 것에 마음을 써야하는 댄서의 생활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방해받음을 깨닫고 그의 생활이었던 댄스를 버리고 거주지를 옮겨 예수님이 새로운 생활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의 방해는 무엇인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1박2일의 영성훈련은 성공적이라고 감히 여길 수 있었다.

이제는 내 방해를 하나씩 들추어 내고 과감히 버리는 일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렇다.

이것이 영성훈련이고, 신앙이 삶을 통제하는 것이리라 깨달으며 새로 만난 형제, 자매와의 사랑을 마음 가득히 하고 다음에 있을 영성훈련을 기대하며 내려올 수 있었다.

제66대 대학생회 총회

대학생회 제66대 회장에 장용(한양대 수학과3)군이 선출되었다. 부회장은 백영미(이대 경영학과3)양이 선출되어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의 대학생회의 임기를 담당하게 된다.

중등부 이창민 집사 커텐 기증

친교실과 예배실로 새로 단장한 선교관 하층 주방에서 소음과 냄새로 예배에 지장이 있는 것을 본 중등부 이창민 집사(1학년 21반 담임)가 커텐을 제작, 기증하였다.

모이는 일에 힘쓸터

“권” 사회에 많은 권사들이 모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권사들이 많이 모여야, 기도도 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견수렴과 집행을 할 수 있겠지요. 내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자기 사명의 감당이라는 책임감을 우리 교회 권사 모두가 가져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90년도 권사회 회장 김순혜 권사(강동구 57구역)는 올해 권사

회의 사업목표를 ‘모이는 일에 힘쓰는 것’으로 잡았다.

권사회의 총 재적은 1700명. 그중 매월 세째주에 모이는 월례회의 참석자는 650명선. 과반수 이상의 출석이 안 되어 개회성원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니 마음이 무겁다”고 회장직을 맡은 소감을 말했다.

친목단체이기에, 올해 독단적 사업계획은 안 갖고, 교역자를 도와서 심방에 주력하는 일과, 교회를 염려하면서 기도와 화평에 힘쓰는 일에 주력할 계획인 권사회는, 6월달에 교육을 중심으로한 권사회수련회를 이틀간 실시한다.



권사회회장 김순혜 권사

상담부

1/4분기 분과별 모임

상담부의 각분과를 활성화하고 책임있는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한 분과별 연구모임이 있었다. 작년에 비해 분과위원회들의 참석율이 높았으며 토의 내용도 진지하고 발전적이었다. 분과모임은 분기별로 한 번 이상 모이게 되어 있으며 여기서 모아진 의견은 분과위원장과 통해 분과위원회에 내어놓게 된다. 한편 분과모임의 연구적인 특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독서와 상담기관 방문, 그리고 자료 수집 및 사례연구 등을 하기로 하였다.

제37회 상담원 연수교육

제37회 상담원 연수교육이 지난 2월 16일 봉사관 405호에서 있었다. 강사는 김동호 목사, 내용은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 상담원에게 유익한 말씀이었다. 이날 참석인원은 103명으로 작년 연수교육 때보다 많았다. 앞으로 계속 높은 출석율을 기대한다. 왜냐하면 자기성장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훌륭한 상담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규 수정 위원회의

상담부 내규 수정을 위한 위원회가 지난 2월 9일 상담부 사무실에서 있었다. 그간 2회에 걸쳐 수정작업한 것을 검토하고 재수정작업을 하기로 했다. 특히 각분과에서 해야 할 일의 범위와 과제를 찾아 정리하기로 했다. 이번 내규 수정작업은 훌륭한 내규를 만드는 것에도 목적이 있지만, 동시에 수정작업의 과정에서 많은 상담원이 대화에 참여함으로써 상담부를 잘 이해하도록 하려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갈릴리성가대 창립 8주년 기념음악회

갈

릴리성가대가 창립 8주년을 맞아 기념소음악회를 열었다. 2월 25일 오후 6시, 천지창조(하이든 작곡 오라토리오, 지휘 김정승)로 음악예배를 드린 것. “천지창조를 곡명으로 정했을 때, 주위에선 반대의 소리가 들렸어요. 갈릴리성가대가 소화해 내기엔 무리라는 염려였죠.”(총무 김근주집사)

갈릴리성가대는 이 음악회를 위해 화·목·토, 2개월간 열심히 연습했다. 드디어 하나님께 드리는 이름다운 찬양으로 일각의 기우를 말끔히 셧고, 성가대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된 갈릴리성가대, 수요2부 예배에서 찬양을 담당한다. 출석 70~80명.

직장에 근무하는 청년층이 대부분인 갈릴리성가대는 대원의 단합을 위해 일년에 두 차례, 야외예배와 등산 또는 체육대회를 가지고 있으며, 2~3회의 소음악회도 열고 있다. 특별히 금년에는 갈릴리성가대의 찬양을 담은 tape를 제작한다.

열의와 기쁨이 있는 성가대, 갈릴리성가대는 얼마전 이런 광고를 냈다.“남자대원 모집함.”

제6기 상담교육

제6기 상담교육이 4월 3일부터 시작된다. 구역장, 권찰, 교사 등의 평신도 지도자들의 상담능력을 개발하고 개인의 갈등해소와 신앙 및 인격의 성장을 돋는 데에 이번 교육의 목적이 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6:30부터 8:30까지 수업이 있으며, 4월 3일에 시작하여 6월 12일에 끝난다. 교육 모집인원을 120명 이내이며, 교육 내용은 상담과 심리학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과 원리를 공부하고 상담의 실제와 인간관계 교육 등을 실시한다. 강사는 각분야의 전문인들로서 대학 교수와 목사 등이 담당한다.

각종상담통계(90.1/21~2/17)

상담분야	전화상담	면접상담	계
신앙	63	9	72
인생	9	5	14
성경문의	24		24
가정	35		35
이성문제	22	3	25
청소년교육	17	1	18
결혼	22		22
안내	7		7
법률	2	1	3
의료	10	1	11
직업	25		25
기타	23		23
계	259	20	279

결혼상담 : <신청> 남-11명

여-38명

(계49명)

<맞선> 8건(총14건)

직업상담 : <신청> 구직-36명

구인-56명

(계92명)

<면접> 34건(총65건)

<해결> 6건(총16건)

전문상담 : <의료> 10건(총12건)

<법률> 11건(총13건)

<세무> 3건(총3건)

3분메시지 : 503통화(총966통화)

청년연합임원 및 조장단 수련회

- 일시 : 1990. 3. 30(금) 오후 11:00 ~ 31(토) 오전 4:00
- 장소 : 영락기도원
- 취지 : 조장들의 열심과 함께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훈련을 통해 실질적인 조장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 프로그램 : 김제은 목사 (온누리교회 부목사)의 말씀과 함께 조장들의 사례발표 및 그룹미팅시간을 가진 애로사항과 운영방법 등을 나눔으로 좋은 방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함.

제4기 지도자 계속과정 실시

• 일시 : 1990. 3. 12(월) ~ 3. 22(금) (월 · 화 · 수 · 목)

오후 7:30 ~ 9:00

• 강의내용

3월	1강(12·월)	2강(13·화)	3강(14·수)	4강(15·목)
과목	개강예배 기독교 교육 (지도력의 성서적원리)	제자 훈련과 교회성장	문화와 크리스챤	‘조’ 운영의 이론과 실제
강사	임정석 목사	조관식 목사	한중식 목사	박홍보전도사
3월	5강(19·월)	6강(20·화)	7강(21·수)	8강(22·목)
과목	종교와 음악	청년 상담학	인간 성장의 이해	종강예배 및 수료식
강사	하용인선교사	김중호전도사	김동호 목사	임정석 목사

● 상담실코너／주택임대차보호법

집 주인이 은행에 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모르고 전세를 들었는데 집이 경매되는 경우

문

작년 4월에 “갑”으로부터 그 소유인 주택 일부(방2)를 보증금 1천8백만원에 임대차기 간 1년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맺고 그 무렵 입주함과 동시에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 집에는 “병”이 다른 방 하나를 보증금 1천만원에 전세를 얻어 입주 사용 중에 있고, 요사이에 알게 된 일이지만 집주인 “갑”이 제가 전세 들기 전에 은행으로부터 1천만원을 빌어쓰고 저당권 설정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밖에도 “갑”에 대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이 있어서 그 일반채권자들의 성화로 2번 저당을 설정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 2월에 은행에서 이 집을 경매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이 집이 경매로 경락인에게 넘어가는 경우에 저의 전세보증금 1천8백만원을 경락 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지요? 또 다른 전세 입자나 일반채권자들과의 수위관계는 어떤지요?

답

1. 작년 12월 30일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약간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새 법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 구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경락대금 중에서 은행채권 1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권리리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2. 개정된 새법령에 의하면 서울시 구역 내에서는 보증금 2천만원 이하인 영세임차인에 대하여 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7백만원까지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귀하의 경우 위 나머지 경락대금 중에서 “병”과 같이 각 7백만원씩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됩니다. (이 최우선변제의 합계가 경락대금의 1/2을 넘을 경우에는 1/2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3. 위 최우선변제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경락대금에 대하여는 개정된 새 법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은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리를 인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았는지가 분명치 않습니다. 만약 안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속히 공증인이나 법원 서기 앞에 나아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갑”에 대한 일반채권자는 물론 귀하가 확정일자인을 받은 날 이후에 담보권을 취득한 후순위 권리자에까지도 우선하여 나머지 경락대금 중에서 최우선 변제권에 따라 받는 7백만원을 제한 나머지 1천 1백만원의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 병 기(집사 · 상담부 전문상담위원 · 변호사)

취임사

—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우물을 파는 자세로 —

먼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영육간의 성장을 위해 여러분들이 베푸신 사랑의 손길 위에 감사드립니다.

“우물을 파되 한 우물을 파라, 그리고 샘물이 날 때까지…” 이 말은 잘 아시는 위대한 신학자 슈바이처 박사의 좌우명입니다. 우물에서 맑은 샘물이 나게 하는 비결은 계속해서 한 우물을 깊이 파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목표를 정했으면 그것이 달성될 때까지 계속적인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교훈이지요.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한 우물만 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곳을 좀 파 보다가

금방 포기하고 다른 곳을 찾아다닙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도 영락여자신학교 교정의 언덕이었으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소명의식을 느끼며 감격한 것도 여기 영락신학교의 올타리 속입니다. 그리고 아무 것도 가진 것 없고 아는 것 없는 저를 14년뒤 다시 이 자리에 불러 세워 주신 뜻은, 말 없이 헌신하는 사랑의 봉사자가 되어 세상의 작은 빛이 되게 하심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우물을 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올릴 때까지 그

저 열심히 두레박을 맞잡고 퍼올리십시오.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의 설립 이념과 또 봉사하는 삶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신 김혜라 교장님의 20년 전통을 거울삼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의 탑을 성실히 쌓아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저의 생활신조가 되어온 성경구절을 소개해 드리며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미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총성이니라.” (고전 4:1~2)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임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불들리라.” (사 41:10)

학교장 김신옥

제19회 영락여자신학교 졸업식

20여년 정든 교정을 떠나는 김혜라교장의 명예교장 추대식도

지난 2월 22일, 영락여자신학교 19회 졸업식과 초대교장 김혜라 선생의 명예교장 추대식이 본교회 선교관에서 있었다.

임지를 향해 학교문을 나서는 졸업생들을 축하하는 이날,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감회는 남달랐다. 오늘의 영락신학교가 있기까지 학교를 키워온 김혜라 교장선생에 대한 존경과 섭섭함이 어느새 졸업식장의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었다.

19회 졸업생들의 입장으로 시작된식은 김치선 장로의 기도와 본교 합창단의 은혜로운 찬양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장인 임영수 목사의 설교로 이어졌다. 그리고

졸업증서수여와 김혜라 교장선생의 졸업생들에 대한 마지막 훈사가 있었다. 「타자에 이끌리어」라는 말씀으로 시작된 이날 훈시는 커다란 감동이었다.

“우리들은 각자의 취향과 생각대로 앞날을 설계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나, 그 꿈은 좌절되고 계획은 허사가 되는 듯이 보일 때가 많다. 그러나 먼 훗날, 새롭게 변화된 자신의 모습과 뜻밖의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바로 바울의 전 생애가 하나님에 의해 주도됐듯이 전도자란 타자에 이끌림을 받는 하늘에 매인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졸업생 여러분들의 앞날에 분명 어려움이 예상

되나, 사도요한이 정배간 섬에서 오히려 새 하늘, 새 땅에 대한 아름다운 환상을 보았듯이, 언제나 꿈을 갖는 전도자가 되라”고 간곡히 당부하였다.

곧이어 영락여자신학교 부이사장인 김치선 장로의 사회로 김혜라 교장선생의 명예교장추대 순서로 이어졌다. 본교 설립자이며 누구보다 김혜라선생을 잘 아는 한경직 원로목사의, 의로운 학교를 지키며 21년간 변함없이 수고한 교장선생에 대한 감사의 말씀이 있었고, 임영수 목사에 의해 명예교장 추대패가 전달되었다.

김혜라 교장은 답사에서 “모든 졸업생들의 깊은 사명감, 학교에 대한 사랑이 나의 사역에 큰 영감을 주었으며 넓은 바다에서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듯 학교를 위해 계속 기도하는 성도들의 격려로 일할 수 있었다”고 인사했다.



제 10 회 영락교회 부활절 음악회

한국교회 음악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영락교회가
부활절 음악회를 마련하여, 여러분이 주일예배에서 은혜
롭게 자주 듣던 성가를 성가대별로 출연하여 아름다운
부활절의 축제로 성가의 밤을 염니다.

Program

- ▣ 갈릴리성가대 (■ 김정승 ◎ 김혜영)
자비 베푸소서/최후의 날
- ▣ 베들레헴성가대 (■ 박영근 ◎ 채문경)
우리 눈 여소서/살아 계신 주
- ▣ 갈보리성가대 (■ 안재성 ◎ 박은혜)
그리스도 오늘 부활하셨다/새 노래로 주 찬양하라
- ▣ 베다니성가대 (■ 백광영 ◎ 임정혜)
내 주는 강한 성이요/기적을 이루었다
- ▣ 임마누엘성가대 (■ 윤치호 ◎ 장영희)
알렐루야(브르크너)/알렐루야(Anonymous)
- ▣ 호산나성가대 (■ 박영근 ◎ 김희선)
오 예수그리스도/주 예수 다시 사셨다
- ▣ 시온성가대 (■ 윤학원 ◎ 윤혜경)
영광/거룩하신 주
(■ 지휘자 ◎ 연주자)



제10회 영락교회 부활절 음악회

- 일시 : 1990년 4월 17일(화)
오후 7시 30분
 - 장소 :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 주최 : 영 락 교 회

□ 지휘/윤학원	윤치호	백광영
	안재성	박영근
□ 연주/김희선	장영희	임정혜
	박은혜	김혜영

(성가대 창단순)



김창희 작 「오, 하나님」 (100×80.3cm)

예수께서 기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니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 25)

- Katia Granoff 화랑초대('82 파리)
- 국전특선 3회 입선 연 10회
- 현대미술초대전('83-'88 국립현대미술관)
- 한·독 미술협회전('86 프랑크푸르트)
-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회원

